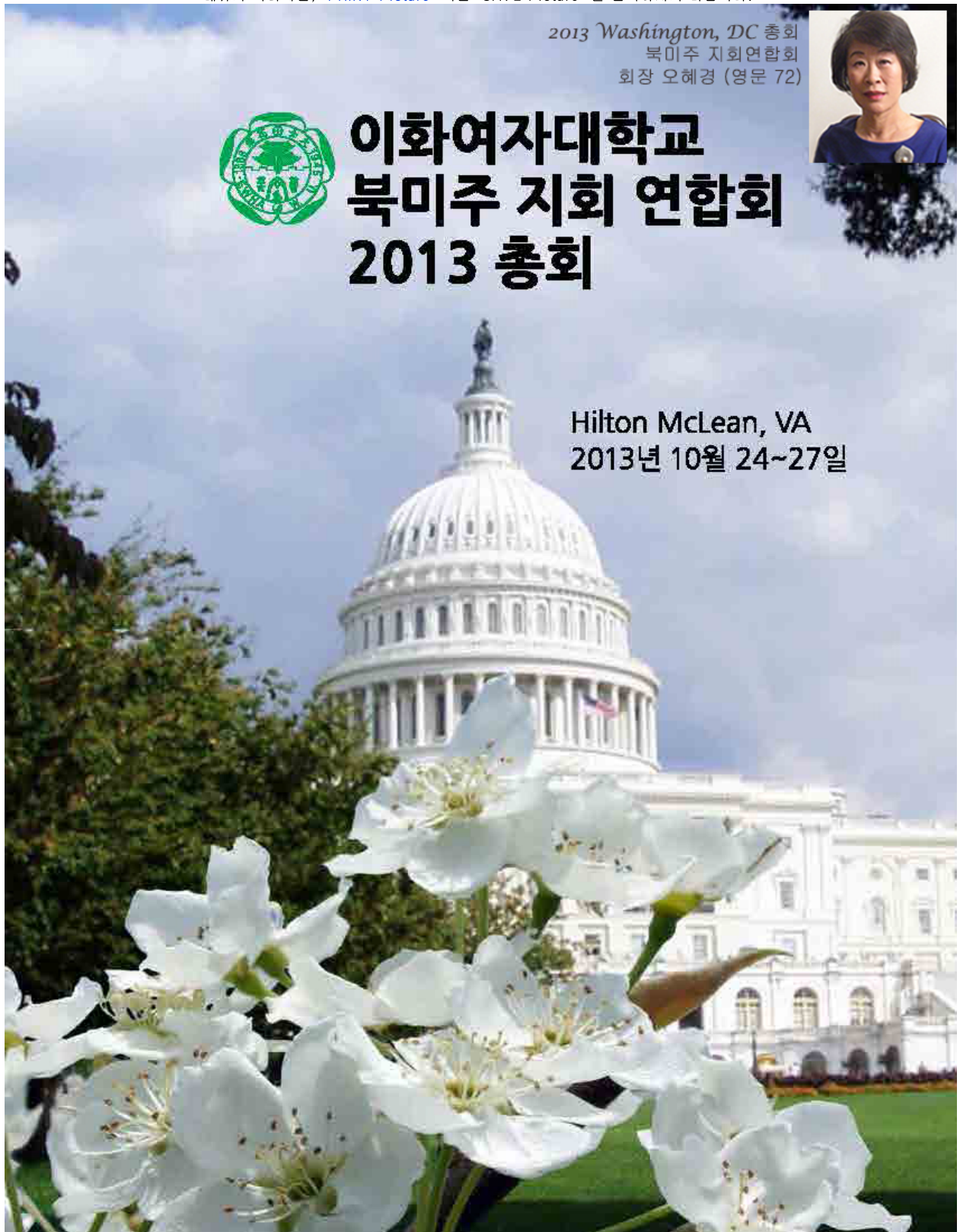


아래의 회보를 한장씩 Print 하시려면, 각 페이지마다 한가운데 "Mouse" 를 대고 "Right Click" 하신후, 메뉴가 나타나면, 'PRINT Picture' 혹은 'SAVE Picture' 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Content 차례

## 인사말

- 이화여대 총장 - 김선옥 ----- 3
- 총동창 회장 - 조종남 ----- 4
- 북미주 지회연합회 회장 - 오혜경 ----- 5

## 이화인의 글모음

- 김활란 선생님을 그리면서 - 김복희 (워싱턴 디씨 지회, 성악 49) ----- 6
- 거울 - 권경주 (워싱턴 디씨 지회, 생물 56) ----- 8
- 이화 그리고 나 - 우은주 (뉴저지 거주, 영문 90) ----- 9
- 강강 수월래, 그 신한 이름으로 - 김영교 (남가주 지회, 영문 63) ----- 10
- 8월, 해변에서 - 김영주 (밴쿠버 지회, 국문 63) ----- 11
- 라인댄스 - 김순자 (시애틀 지회, 사회사업 65) ----- 11
- 愚夫曲 - 김연아 (보스톤 지회, 도서관 91) ----- 12
- 영동한 변명 - 이경숙 (오하이오 거주, 의류직물학 72) ----- 13
- 클로드 쇠의 "황홀한 달빛" 을 타고... - 조신자 (에드몬톤 지회, 영문 63) ----- 14
- 언니의 아들 - 김옥교 (북가주 지회, 국문 60) 천국의 초원에서 달리다 - 이영강 (남가주 지회, 국문 66) ----- 15
- 어머니의 부엌 - 백복현 (토론토 지회, 영문 82) ----- 16
- 그림같은 정원이 있는 집에서 열린 노래교실에 다녀왔어요 - 유희영 (토론토 지회, 경제학 86) ----- 17
- 천국의 초원에서 달리다 - 이영강 (남가주 지회, 국문 66) ----- 18
- 뉴욕의 봄 - 신혜진 (뉴욕 지회, 영문 80) ----- 19
- 이화, 그리고 이화국제재단 - 신장현 (워싱턴 디씨지회, 교육 57) ----- 20

## 지회 소식

- 북가주 지회 ----- 22
- 토론토 지회 ----- 23
- 밴쿠버 지회 ----- 24
- 에드몬톤 지회 ----- 24
- 남가주 지회 ----- 25
- 뉴욕 지회 ----- 26
- 보스톤 지회 ----- 26
- 아틀란타 지회 ----- 27
- 워싱턴 디씨 지회 ----- 27
- 클리브랜드 지회 ----- 28
- 휴스턴 지회 ----- 29
- 시애틀 지회 ----- 29

## 북미주 지회장 영단 ----- 30

년도별 연례회의 주최지회 ----- 31

2013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 일정표 및 신청서 ----- 32



사랑하는 북미주 동창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모교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김선옥입니다.

본관 앞 목련이 만발하고 진달래, 개나리, 산수유가 이화의 캠퍼스를 단장하고 있는 아름다운 계절에 북미주 동창 여러분께 그리운 인사를 전합니다. 작년 11월 밴쿠버에서 즐거웠던 시간이 생각납니다. 머나먼 타국에서도 이화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어 모교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주시는 이화가족을 만날 수 있어 한없이 든든하고 감사한 자리였습니다.

이화는 올해로 12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한 명의 여성으로 시작하여 전 세계 최고, 최대 여성지성공동체로 성장한 이화의 오늘 앞에는 사랑과 헌신으로 봉사하셨던 스승님들과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이제 이화는 그동안 한국여성교육의 산실로서 도전과 성취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 온 우리의 정림과 지혜를 세계 여성들과 나누면서 '글로벌 여성교육의 허브'로서 대학의 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이화는 세계적인 교육 및 연구역량을 갖추고 글로벌 여성의 관점에서 사회변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제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교는 기초소양과 인성을 겸비한 세계 속의 '이화형 인재' 양성을 위해 레지덴셜 칼리지(Residential College)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기숙학교인 '이화학당'의 전통을 살려, 2015년부터 신입생 전원이 합숙하며 인성·공동체·리더십 통합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이화는 전인교육을 통해 지성과 인성을 고루 갖춘 글로벌 여성인재, 개인이 아닌 우리를 중시하는 세계시민사회 주역으로서의 여성 리더들을 배출해 낼 것입니다.

이러한 이화의 행보를 응원하고 글로벌 여성교육의 사회적 책무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자 전 세계 많은 여성 리더들의 발걸음도 본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3월에는 하버드대 첫 여성 총장인 드류 길핀 파우스트 총장이 방문하여 '명예 이화인'을 수여 받는 뜻깊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타르야 할로넨 핀란드 전 대통령도 이화를 3번째 방문하여, 여성 리더십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변화의 중심이 이화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로 7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개발도상국 인재양성 프로그램인 EGPP(Ewha Global Partnership Program)에는 전 세계 34개국 154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제 3세계 공익부문 여성활동가를 위한 EGEP(Ewha Global Empowerment Program)를 비롯해 개발도상국 여성연구원과 공무원의 집중교육 프로그램인 Ewha-KOICA 프로그램까지, 이화는 앞으로도 제 3세계 여성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대학의 역할을 선도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전 세계 여성을 위한 '글로벌 여성교육의 허브'로도 약하겠다는 이화의 비전은 동창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가 있을 때 실현 가능합니다. 이화의 새로운 도전에 동창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총장으로서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모교 이화가 더욱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는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북미주지회 연합회 총동창회에서 그리운 동창 여러분 모두를 다시 만나 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사랑하는 북미주 이화가족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에 언제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장  
조 중 남

2013년도 워싱턴 개척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를 기대합니다

지난 3월 총동창회 총회에서 이화여자대학교 제16대 총동창회장으로 선임한 조중남입니다. 보고 싶은 동창님들께 이렇게 지면을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며 6개월 후 워싱턴에서 개최할 북미주지회 연합회 총회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북미주 각지에서 참석하실 동창님들을 만날 생각에 마음이 설렙니다.

작년에 저는 밴쿠버에서 열린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 참석하고 2011년 보스턴에 이어 또다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북미주 각 지역의 1만여 명의 동창님들의 대단한 활동에 우리 이화가 가진 큰 힘을 실감하였고 총회에 참석한 지회 동창님들의 지극한 모교 사랑에 감동했습니다. 밴쿠버 지회 임원들께서 하나가 되어 성심성의를 다해 총회를 준비하는 모습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추억거리를 많이 만들어준 북키 여행도 앞으로 오랫동안 추억의 창에서 고개를 내밀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제가 16대 총동창회장의 부름을 받고 2년 전 의욕 있게 출발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기독교인으로서 "사랑과 화합, 열정의 동창회" 가치를 다시금 앞세우고 또다시 힘차게 출범하려 합니다. 그리하여 20만 동창들의 삶의 열정과 창조적인 에너지가 총동창회를 통해 한자리에 모여서 새로운 문화로 창출될 수 있도록 항상 동창님들의 총연과 지도편달에 귀 기울이며 노력하겠습니다.

동창 여러분,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는 우리 이화가 하나로 뻗어 가는 뿌리입니다. 그 뿌리에서 피어난 귀한 꽃들은 마치 담장이 어느새 벽을 푸르게 백백이 덮어버리듯 전 세계 곳곳에서 아름다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들 마음에서 변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진리는 우리 모두 한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도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많이 칭찬하며 살아갔으면 합니다. 저희 총동창회 역시 언제나 기쁘게 동창님들을 만나고, 또 부르실 때 언제든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부모님, 은사님, 그리고 많은 분들의 사랑과 기도의 덕을 받았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하기에 우리가 가진 재능을 주위에 나누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행복해지려면 섬기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섬기되 불평하지 말고, 매사를 감사하며 자신보다 남을 우선시하는 마음으로, 몇가 없이 섬기면 스스로 행복이 찾아온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총동창회는 올해 이화 창립 127주년을 맞이하여 5월 4일 제2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 그리기를 개최하며 5월 31일에는 총동창회와 모교의 최대 행사인 창립기념일 및 동창의 날 행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임원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동창의 날에 참석한 해외 동창님들을 모시는 작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해외 동창 여러분의 참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번 10월에 개최하는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를 위해 오혜경 지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임원님께서 수고가 많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기쁨 충만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워싱턴에서의 만남에 많은 동창님을 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4 이화여대 북미주 지회 연합회



북미주 지회 연합회 회장  
오혜경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디씨 지회 회장 오혜경(영문 72)입니다.

미국의 수도이며 전 세계의 정치의 중심지인 워싱턴 디씨에서 총동창회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를 열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일 년에 한 번씩 북미주 여러 지역에 계시는 모든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의 모교 사랑을 나누는 특별한 만남입니다. 이 기회에 개성 있고 멋있는 우리 워싱턴 동문과 우리의 아름다운 도시를 여러분들에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동창들과의 즐거운 시간을 나누시고 또한 워싱턴의 아름다운 가을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올 총회의 주제인 "Cherish our Heritage to Impact the Future" 과거의 유산을 존중하고 미래를 창조하는 현재 이 시간의 중요성이 우리 동창회의 특성과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 동창회의 가치와 돈독한 기반을 세우신 존경하는 우리 선배님들, 그리고 그 위에 이화인 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색깔을 더한 자랑스러운 우리 후배님들 -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우리 선후배 동문들이 계셔서 우리 이화동창회의 미래는 밝고 그 가능성은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많이 쓰이는 버즈워드 중 하나가 브랜딩이라는 말입니다. 비누나 코카콜라등 소모품에서 시작되어서 이제는 국가브랜드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화동창회는 어떤 이미지로 사회에 비쳐지고 우리의 브랜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또한, 우리 동창 한 분 한 분이 우리의 지역사회에서 어떤 브랜드로 보여 질까요? 저의 작은 바람은 우리 개인과 동창회가 우리가 받은 유산을 곳곳이 지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더 나아가서 미래를 여는 동불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워싱턴 지회에서 열심히 총회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 메트로폴리탄 워싱턴지역에서는 정말 오랫동안 열리는 큰 잔치입니다. 자랑스러운 모교의 발전상과 글로벌 여성교육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즐거움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친구들 사이에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떡을까~ 말까~ 할때는 먹지 말고 갈까~ 말까~ 할때는 가는 거라구요'. 꼭 오십시오.

워싱턴에서 뵈겠습니다.



"대선배님께 듣는다"

# 김활란 선생님을 그리면서



김복희  
(워싱턴 디씨 지회, 성악 49)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김활란 선생님!  
 구원의 기쁨, 은혜의 기쁨, 사랑의 기쁨, 소망의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사신 김활란 선생님을 그리면서 이 글을 쓴다.  
 김활란 선생님(1899-1970)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여성 지도자요, 기독교 교육가로, 1918년에 이화학당 대학과를 졸업하시고, 1931년에 Columbia University에서, 한국 여성으로 최초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1939년 그의 나이 40세에, 이화여전 교장으로 취임하여, 이화여전으로는 2대, 이대학당부터 치면 7대 교장이셨다.  
 해방 후, 남녀 차별이 엄존하는 사회에서 여성의 지도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여자대학이 필요하다는 신념으로, 학교를 종합대학으로 개편하여, 1946년에 문교부에서 인가를 받았다. 이화여대를 세계 최대의 여자대학으로 키우시고, 1962년 62세로 총장직을 은퇴하셨다.  
 선생님은 1919년 이후 암담했던 우리 나라의 실정술, "감람나무 사나운 바람 불 때"의 찬송가 461장을 통해서, 사나운 바람이 부는 캄캄한 바다를 지나가는 작은 배로 비유하시고, 공의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니 우리를 구원해 주실것이라는 확신을 노래하셨다.

1.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불때 만경창과 망망한 바다에 / 외로운 배 한척이 떠나가니 아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2.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놀란 물 큰 파도 일 때에 / 저 뱃사공 어쩔줄 몰라하니 아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3. 절망 중에 그 사공 멀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빛 보고서 /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오 기도올린다 기도올린다
4. 아버지여 이 죄인 굶어보사 청년 풍랑 잔잔케 하시고 / 이 불쌍한 인생을 살려소서 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5. 모진바람 또 험한 큰 물결이 성내어 덮쳐도 / 권능의손 그 노를 저으시니 오 맑은 바다라 맑은 바다라

6 이화여대 북미주 지회 연합회



대학예과 졸업(김활란: 아랫줄 오른쪽)

14 후퇴 후, 선생님은 피난 정부의 공보처장으로 일하시면서, 영자신문 "코리아 타임스"를 발행하시고, "전시 홍보 외교 동맹"이라는 민간 외교 단체를 만들어, 부산의 "필승각", 대구의 "한국의 집", 서울의 "홍보 외교 지부"를 두고, 유엔군 장병과 유엔 중군 기자들에게 한국의 전통 음식과 음악, 문화를 소개했다.

나는 손인실 선생님이 운영하시던 대구의 "한국집"에서 3명의 이대생과 함께 자원 봉사를 했는데, 그때 같은 방을 썼던 친구가 지금 New Jersey에 거주하는 장혜원 박사(약대 50, Columbia Univ. 교수 은퇴)이다.

1967년 이화 10년 발전 계획 회의에 오셔서, New York City의 Plaza Hotel 부근에서 지내신 적이있다. 음악을 무척 좋아하신 선생님이 피아노를 치시고, 친구 김배채 선생님과 노래를 몇 곡 부르시더니, 잠깐 산보를 하고 오신다고 나가셨다. 나와 친구인 이해경(고종황제 손녀, 음대 50)이 식사준비를 다 마치고 기다리며 걱정을 하고 있는데, 두 분이 즐거운 표정으로 들어오셨다. 알고보니, Central Park를 일주하는 마차를 타시고, 녹음이 우거진 공원을 일주하시면서, 노래도 부르시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하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더라, 우리들이 기다리는것도 잊으시고, 맛있는(?) 저녁 잡수



시는 것도 잊으셨다고 한다. 나와 해경이도, 언젠가 파자를 같이 타자고 약속했는데, 아직도 못 타봤지만, 언젠인가 꼭 타보려고 한다.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얼굴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의 아름다움은 어디 한 군데가 아니라, 모든 면으로 아름다운 분이시다.

한번은 선생님께서부터 꾸지람을 들었는데, 약간 미소를 띤 표정으로, 음성이 부드럽워서, 솜방망이로 때맞은 기분이었다. 선생님께서 억눌린 이 나라 여성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어머니와 같은 분이시다. 이 세상에서 어머니라는 말처럼 아름다운 말이 또 있을까? 이화에서 배우시고, 이화를 사랑하고 키우신 선생님은 어머니 같이 그럽고,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은 분이시다.

1996년에는 이연희(이대 동창 연극인회)의 창립공연으로, "꿈꾸는 거인, 활란"이라는 연극이 공연되어, 제자들의 선생님을 사모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선생님은 은퇴하신 후 전도에 정성을 쏟으시고, 만리이역에 찾아와 이 나라에 기독교를 전파했던 선교사들을 항상 생각하셨다. 1960년 후반, 선생님은 이화의 친구들(미국인과 캐나다 후원인)이 좀 더 자율적으로 이화를 위해 기금을 모

금하고 후원자나 단체를 찾을 수 있도록, 보다 초교파적이고, 동등한 파트너십의 구축을 모색하셨다. 모금활동으로 건강에 무리가 오셔서, 1969년 10월 귀국하시고, 그 다음해 1970년 2월 10일 서울에서 작고하셨다. 그해 4월 15일에 이화여자대학교 국제재단의 창립식이 있었으니, 이것이 선생님의 생애의 마지막 목표를 완성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본 받고, 묵묵히 살아가시면서, 늘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신 선생님이 그럽다. (정리: 최숙자, 도서 69)



### 김복희 선생님의 김치 Recipe

이 김치는 1950년대 UN 총회에 민간외교관으로 오신 김활란 선생님을 위해 만드신 김치이며 김자경 선생님(음악과 40졸)으로부터 받으신 recipe이다.

Ingredients: 배추(2통) 파(2단) 마늘(2T) 생강(1T) 부추(1단) 배(1) 양파(작은 것 1) 태양초 고추가루(1/2C) splenda (설탕 대용, 5 packets) 멸지것국(1/2C) 잣(1/2C)

1. 배추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후 깨끗이 씻어서, 물기불 잘 뺀 후 소금 (맛소금)을 짜지 않게 적당히 뿌려 놓는다. 배추는 소금으로 짠 후 따로 씻지 않는다.
2. 파와 부추는 2cm 길이로 자른다.
3. 마늘과 생강을 잘게 다진다.
4. 배와 양파는 채 썰어 놓는다.
5. 모든 재료를 함께 넣어 버무린다.
6. 본인의 식성에 따라서, 용량을 조정한다.



#### \*\*김복희 동문 약력

- 1949 이화여자대학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 1950 Opera "Carmen" 한국 초연에서 Carmen 역으로 주역
- 1951~53 피난중 이화여자대학에서 조교
- 1953 도미후 여러 대학에서 성악 공부
- 1962 국립 오페라단 창단 공연인 장일남의 "왕자 호동" 그리고 모짜르트의 "돈 조반니"에서 주역
- 1971 한국에서 독창회
- 1972 Carnegie Recital Hall에서 독창회
- 1973 김자경 오페라단의 "사랑의 묘약"에서 주역
- 국립오페라단에서 루치아의 "투란도트"에서 주역
- 1972-91 동 대학에서 시간 강사

\*저서: "비엔나 숲속의 이야기," "여류 음악가 11선," "아버지 팔봉 김기진과 나의 신앙"



# 거울

권경주  
(워싱턴 디씨 지회, 생물 56)

나와 같은 연구실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하다가 남쪽에 있는 어느 의과 대학으로 떠난 후 15년 동안 보지 못했던 동료 한 사람을 지난 1월 어느 meeting에서 만나게 되었다. 나를 보자 반가워하면서 “십오 년 전의 모습 그대로 변함이 없네요.” 라고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틀림없이 듣기 좋은 말이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나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다. 거울 덕분~

육십 고개를 넘은 후에는 아침에 세수하고 거울을 볼 때 그 전 날까지 안 보이던 검은 반점이 하나씩 늘어 가고 없었던 새 주름이 갑자기 눈에 띈 때마다 “어쩌면 어제까지 없었던 것이 이렇게 쉽게 생기지?” 하면서 실망스럽게 증얼거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거울은 누구나 다 가졌고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는 소유물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거울은 인간이 발명한 것 중에서 가장 신기한 것 중의 하나로서 그 용도는 엄청나게 다양하다. 아침에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드는 날에는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는 심리 상태로 바꾸어 놓을 힘이 있는가 하면 각 가지 의료 기구나 생명과학 연구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기구 중에 거울이 사용되는 부분은 수없이 많다. 생명과학 연구에서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주과학 연구에 쓰이는 망원경에도 거울은 없어서 안 되는 한 부분이다.

어릴 때 어머니 경대 앞에서 어른들의 화장하는 것을 흉내를 내 입술과 눈썹을 삐뚤삐뚤하게 그리고 잠시 함께 살던 사촌 언니의 dress와 하이힐을 몰래 꺼내서 입고 신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커서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떻게 보일 것인지 상상의 날개를 펴 보는 재미도 거울 때문에 맛볼 수 있었다. 거울이 없었다면 나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궁금증을 풀지 못한 채 살아갈 것이다. 물에 비친 나의 모습 또는 매끈한 양철 판이나 구리 같은 금속물에 비친 자신을 보고 희미하게 드러나는 모양은 알 수 있지만 속 시원하게 궁금증

을 풀어주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거울이 발명되기 전이었던 시대 바울 시대에는 금속물을 반질반질하게 갈고 닦아서 거울로 사용했고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전 13:12).” 라고 했나보다. 지금과 같이 거울이 있었다면 그 성경 구절은 달라졌을 것이다. 우리가 거울을 수시로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의 모습에서 혹시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과 자신의 모습이 그저 궁금해서 하루에도 수 번씩 화장실 출입을 할 때마다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유가 아닌가 생각된다.

하나님께서서는 야고보를 통해서 거울을 진리의 말씀으로 비유하셨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저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약 2:22-24).”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알면서 행함이 없다면 이마에 검정이 묻어있는 것을 거울로 보고도 잊어버리고 닦아내지 않는 사람과 같다는 뜻이다.

오늘 아침에도 어김없이 제일 먼저 거울 앞에 서서 흐트러진 머리를 바로 잡고 얼굴을 다듬었다. 그리고 또한 QT 시간을 통해서 하루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의 양식을 공급받았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고 권고하신 말씀이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잘 풀리지 않는 일을 당할 때마다 염려부터 앞세운다면 시금치 조각이 이빨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거울을 통해 알고도 그대로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민망스럽게 만드는 격이 될 것이다.

오늘 하루도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삼가 하나님을 민망스럽게 하지 않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해 본다.

### 약력

세계적으로 진균학계에서 권위와 명성을 떨치고 있는 권경주 동문은 지난 2009년 Univ. of Wisconsin에서 세계 공중보건 개선에 기여하고 진균연구의 초석을 다진 공로로 명예 과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권 박사는 1958년 본교에서 생물학 학사(수석졸업)와 1958년 동 대학원 석사학위, 또 Univ. of Wisconsin에서 세균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고 1958년 이후로 미국 국립보건원(NIH)에서 거의 한 세기 동안 진균연구에 몰 바치고 있으며 현재 동 연구소의 분자 미생물학 및 수석연구원으로서 AIDS 및 기타 면역손상 장애로 인하여 진균에 감염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데 힘쓰고 있다.

권 박사의 기념비적인 연구 성과로 수많은 학술상이 주어졌고 그 중에 생지학술상(1992), 자랑스러운 이화인 장학금 부문(1995) 그리고 KBS 해외동포상(1999)이 포함되어 있다.





# 이화 그리고 나

우은주(뉴저지 거주, 영문 90)

나와 “이화”와의 만남은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시작 되었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  
우은주(뉴저지 거주 영문 90)이다. 우리 어머니가 이화를 다니셨던 그때부터 말이다.

이화 동창이신 어머니(가정 65)와 이화 캠퍼스를 처음으로 구경했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그날은 내가 이화여자대학교에 입학원서를 제출하는 날이었다. 어머니는 딸이 동창이 될 것이라는 사실에 가볍게 흥분이 된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처음 만났던 이화 교정은 정말 넓고 커다랐다. 이화 교를 지나면서 내려다보이는 기차길, 붉디붉은 이화 광장, 신단수라고 불렀던 나무 한 그루, 그 위에 우뚝 솟아있는 대강당. 어머니는 대강당을 가리키시며, “내가 학교 다닐 때에는 저기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냉장고라고 불렀었다”고 말씀하셨다. 대강당 안에 들어가면 냉장고에 들어간 것처럼 추웠었다는 얘기도.

내가 두 번째로 만난 이화는 대입 논술 고사가 있던 날이다. 우리 학년은 대입 논술고사를 치른 첫 번째 학년이였다. 학관에서 논술고사를 치르고 나올 때 나를 기다리고 계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날 앙상하게 가지만 드리우고 있던 학관 앞의 나무들도.

그리고 입학식. 입학식에서 장상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들리는 듯하다. “100년 전 이화 학당을 시작한 단 한 명의 이화인이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개교 100주년에 입학한 여러분들 또한 이화의 새로운 100년을 이끌어갈 의미있는 이화인들입니다.” 그 때 나는 내가 마치 100년 전 이화 학당의 첫 학생으로 입학했던 그 선배가 된 양, 가슴

뿌듯해하며 이화가 앞으로 새로운 100년 동안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가야 할까를 머릿속에 그려보았던 것 같다.

이화에 처음 등교했던 날, 기대, 흥분, 긴장, 결심, 그리고 꿈. 작은 교실에서 웅성거리며 지내던 고등학생 시절과는 달리 그 넓은 캠퍼스를 돌아다니며 수업을 들어야 하는 대학교에서의 첫날을 지내고 집에 온 나는 피곤해서 잠에 푹 아떨어졌다. 대학생이 되었노라고 차마 입고 구두를 신어야만 할 것 같아서 입었던 차마. 처음 샀던 하이힐. 하이힐 신고 계단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다시는 안 신게 되었지만, 작은 핸드백. 대학생은 책가방에 책을 넣지 않고 손에 들고 다니는 것 같아서 가슴에 끼안고 다녔던 책들. 결국, 나중에는 커다란 가방 안에 다 넣고 어깨에 매고 다녔다.

그 당시 이화인이려면 잊을 수 없었던 채플 시간. 채플 시간에 늦을 때면 숨을 헐떡거리며 그 높은 계단을 뛰어 정상(?)에 오른 뒤, 대강당 정문이 열려있는 모습을 확인한 후 느꼈던 짧은 희열. 아마 그 맛은 요사이 이화를 다니는 학생들은 알지 못하는 우리 세대만의 맛이었을 것이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회. 대강당에서 주일마다 예배가 드려졌다. 담임목사는 그때 학교 교목이셨던 박원기 목사님이 맡고 계셨는데, 주일마다 해주시는 설교가 좋았다. 나는 내가 거기서 세례를 받던 날의 감격을 잊지 못한다. 세례식을 준비하기 위해 만났던 모임에서 목사님이 사주셨던 미관의 물냉면 맛도.

그 때 나는 신앙심이 그리 깊지는 않았지만, 대학교회 회보 편집부에서 기사를 모집하는 광고를 보고 지원해서 함께 일하게 되었다. 회보 편집부 기자들이 기독교학과 학생들어서서 기독교에 대해 아는 것이 많았고, 내가 모르는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다. 또한, 신문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작업이 모여서 되는 일이며 얼마나 큰 책임을 필요로 하는 것인가 하는 것도 알게 되었다. 교회 회보 편집부에서 일했던 것은 내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했던 일 중에 가장 잘한 일 이었던 것 같다.

2학년 때, 나는 학관 벽보판에 붙은 광고를 하나 보게 되었다. 이화와 자매학교인 밀스 칼리지 (Mills College, Oakland, CA)에 연수를 하러 갈 학생들을 모집한다는 광고였다. 그때만 해도 해외 여행이 자율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해외 여행이나 해외 연수는 정말 귀한 경험이었다. 생전 처음으로 밭아보는 이국땅. 게다가 경관이 아름답기로도 유명한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버클리 지역. 그 연수를 통해 나는 미국 유학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고, 함께 갔던 학생들 중에 내 평생의 멘토이자 친구인 선배를 만나게 되었다.

3학년, 4학년은 빨리 지나갔다. 봄에는 도서관으로 올라가는 언덕길에 피어나는 하얀 목련에 설레기도 했고, 잠깐 만개했다가 너무나 빨리 저버리는 그 목련의 모습에 가슴 아파하기도 했다. 가을에는 이화 캠퍼스를 온통 노랗게 물들이는 은행잎에 취해 하루종일 캠퍼스 안을 돌아다니는 적도 있었다.

이화여대 북미주 지회 연합회 9

4학년 때 들었던 김영일 교수님의 20세기 영시 강의. 난 아직도 교수님께서 수줍은 미소를 띠시며 우리에게 읽어 주셨던 로버트 프로스트의 "The Span of Life"라는 시를 기억한다.

The old dog barks backwards without getting up.  
I can remember when he was a pup.  
늙은 개가 (앉아서) 일어나지 않은 채 뒤를 돌아보며 짖는다.  
나는 그 개가 강아지였을 때를 기억한다. (우은주 역)


그때는 잘 몰랐다. 이 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지. 왜 교수님께서 교재에 나와있지 않은 이 시를 특별히 읽어주시는 것인지. 하지만 이십 년이 훌쩍 지나버린 지금, 4학년 가을 김영일 교수님을 모시고 친구들과 학교 곳곳에서 찍었던 사진들 속에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제서야 이 시를 이해하게 된 나를 발견한다.

이화를 졸업하던 날,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고, 얼굴에 화장을 하고, 추운데도 불구하고 짧은 치마를 입고, 목에는 하얀 리본을 달고, 흰 장갑을 끼고는 4년 동안 열심히 채플을 드렸던 대강당에서 졸업식을 했다. 이화 캠퍼스에는 우리 집안 식구들이 모두 모였다. 부모님, 동생들, 할머니, 할아버지, 외가족 친가족 삼촌들과 숙모들, 사촌들까지 모두. 내가 양쪽 집안의 가장 첫 번째 손주이기 때문에 나의 졸업식은 가족 모두의 즐거움이자 관심사였다. 캠퍼스는 온통 졸업생과 졸업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로 가득차 있었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약속 장소가 필요했고, 김활란 박사 동상 앞이 우리 가족의 집합 장소였다. 우리는 즐거워하며 사진을 찍었다. 그날, 나를 대견스럽게 바라보시던 부모님의 얼굴이 떠오른다.

내가 이화를 졸업하던 날로부터 도대체 몇 년이 흐른 것일까?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흥분, 꿈 등으로 상기되었던 그날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사람일까? 이화 캠퍼스도 많이 변했다. 드넓었던 이화 광장도 없고, 이화교도 안 보인다. 신단수는 아직 있는지 모르겠다. 세상이 변하니 캠퍼스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이화도 변한다. 하지만 내 마음 속의 이화는 아직도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살아있다. 내 마음 속의 이화 광장은 아직도 친구들의 함성으로 가득차 있고, 내 마음속의 학관 4층 강의실에서는 김영일 교수님의 영시 강의를 계속 듣고 있다. 기차 꼬리를 밟으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다고 이화교 위에 서서 밀리로 지나가는 기차 꼬리를 밟아대던 친구들도 아직 그 자리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서 있을 것 같다.


이화.  
이제 이화는 내게 단순히 "내가 졸업한 모교"라고 하기보다는 "틀기만 하여도 가슴 설레는"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리운 나의 고향이다.

10 이화여대 북미주 지회 연합회



## 강강 수월래, 그 선한 이름으로

김영교(남가주 지회, 영문 63)



하나님도 하나  
복음도 하나  
생명도 하나  
십자가도 하나

조국도 하나  
고향도 하나  
언어도 하나  
이화도 하나

이제 '서로 사랑하라' 가르침 따라  
'하나' 안에 살 길 있네, 평화있네

우리 손에 손잡고 강강 수월래  
마주보고 웃으며 강강 수월래

역사를 빛낼  
세계화의 날개를 달고

하나님의 소망  
영생의 꿈, 헌신의 밀알정신  
진선미의 이화, 이화의 주전자\*정신

미래를 향해 날아오르리  
자유를 향해 날아오르리  
하늘 높이 푸르게 푸르게 날아오르리.

\*주래정 전문성개발원\*

# 8월, 해변에서

김영주 (펜부버 지회, 국문 63)

바다와 내가  
단 둘이  
4박 5일 동거를 한다

외로운 것이 사람 뿐이라  
외로운 것이 바다 뿐이라

흰 종아리 펄럭이는 파도 곁에서  
한 잔을 떠서 와인처럼  
한 잔을 떠서 그리움처럼  
나는  
바다를 마신다



물처럼 쓰고 싶었던  
사랑 욕망 지폐  
쏟아 앉히고

아름다운 밤을 먹고도  
아름다운 말을 할줄 모르는 나도  
쏟아 앉히고

바다와 나는  
수평선 그 먼 데까지 나가  
한참을 울었다.



## 라인댄스



김순자  
(시애틀 지회, 사회사업 65)

“베사메 유초”에 맞추어 “little Rhumba”를 추자면 감미로운 음악과 슬로우 모션의 춤의 매력에 흠뻑 빠져든다. 몇 년 전 우연히 알게 된 라인댄스 때문에 요즘은 댄스가는 발을 기다리며 즐겁게 지낸다. 앞으로 탁쳐술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 건강인데 라인댄스만큼 좋은 것이 있을까 생각한다. 내가 사는 서북미의 겨울 기후는 비가 많이 오니 밖에서 걷기도 힘들고 또 혼자서 40분 내지 한 시간 걷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라인댄스를 처음 시작할 때, 춤을 인도하는 친절한 중국 강사가 시작하기 15분 전에 나와서 한 스텝씩 개인 교습을 해주어서 비교적 빨리 배울 수 있었다. 라인댄스는 춤과 음악이 어우러진 전신운동이라 할 수 있다. 흥겨운 음악에 맞추어 추다 보면 즐겁

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운동을 한다는 동료의식까지 생긴다. 라인댄스에 나오는 사람들은 중년이나 노년의 사람들로 거의가 여자들이다. 남자들도 나와서 라인댄스를 추면 그분들의 수명이 길어질 텐데 안타깝다.

운동 삼아 또는 다른 사람들과 춤을 같이 추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화제는 자연히 어떻게 하면 춤을 더 잘 출 수 있나에 있다. 또 중국, 한국, 일본, 미국인들이 섞여서 인종간의 조화도 매우 좋다. 볼룸댄스는 파트너가 있어야 하지만 라인댄스는 파트너 없이 출을 맞추어 군무로 추기 때문에 부담감도 없는 것이 큰 장점일 수 있다. 라인댄스는 발에 기교를 많이 넣고 또 돌아야 하는 부분도 많아서 초보자에게 힘들 수도 있다.

처음에는 인도자의 발을 많이 보고 따라 하는데 사람들 중에 매우 잘 추는 사람들도 여럿이 있어서 그들의 발을 보고 모션을 보고 따라 하면 그리 어려운 것도 없다. 잘 모르는 스텝을 보려고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블루진에 카우보이 모자를 쓴 남녀들이 출을 맞추어 즐겁게 추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동양인들도 인터넷에 많이 나오는 것을 보니 라인댄스는 동서양 모두 다 즐기는 댄스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오래전 한국에서는 자유부인 바람이 불어, 시교댄스 추다가 가정이 파괴되고 하여 댄스에 대해서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최근에 ABC 채널에서 인기 있는 “Dancing with the Stars”에 보면 파트너와 얼마나 친밀하며 얼마나 sexy 하게 느끼는가

에 점수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보니 역시 부부나 연인이 아닌 남  
 녀가 추는 춤은 신체접촉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이 좋지  
 않은 것도 이해가 간다. 그런 면에서 보면 라인댄스는 가장 건전  
 하고 안전한댄스운동이라 할 수 있다. 차치는 기본이고 땡고, 볼  
 바, 맘보, 왈츠 등 유명한 스탭들을 라인댄스에 변형시켜 이쁠다  
 운 음악에 맞추어 추는 라인댄스야말로 건강을 지키고 즐겁게  
 사는 인생의 필수과목이라 할 수 있다.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시니어 센터에서 주  
 관하는 모임은 점심값 정도 내고 또는 기부금 \$1.00 정도 내니  
 비용도 많이 안드는 최상의 운동이라서 누구라도 용기를 내고  
 시간을 투자하면 즐겁게 운동하며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80  
 이 넘은 한 일본 할머니는 일주일에 다섯 번을 출타하는데 모범 학  
 생으로 모두가 좋아하는 분이다. 앞으로 수명이 더 길어진다니  
 무엇으로 즐겁고 건강하게 살겠는가? 재미있게 살시다. 차차차

# 思夫曲



김연아  
 (보스톤 지회, 도서관 91)

마토에서 고무장갑을 고른다. 작은 손용을 살까, 큰 손용을  
 살까?... 내가 고민을 하면 설거지 담당인 남편은 덩석 큰 것을  
 골라 카트에 담은 했다. "작은 것 끼고 설거지하면 피부가 땅  
 겨서 말이지..." 설거지 담당인 남편은 자신의 특권인양 고무  
 장갑을 살 때는 제 손 크기에 맞춰 왔다. 슈달리 손이 작은 나  
 는 그러면 뽕거지처럼 커다란 고무장갑을 끼고 개수대 앞에  
 서 어긋거러기 마련이다. 이번에도 곱방 남편이 나타나 큰  
 손용으로 골라 들것 같다. 나는 고개를 들고 주변을 두리번거  
 린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건 온통 낯선 얼굴들이다. 그렇지...  
 그 사람, 지금 여기에 없지...

나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걸 고민하느라 시간을 허비한 바  
 보짓을 깨닫고 혼자 배시시 웃는다. 앞나가 보이고 눈꼬리가  
 내려가고 뺨이 벌어지는데 코머리에선 핑하고 쓰린 기운이  
 모여든다. 눈이 웃는데 눈은 빨개진다. 빨간 눈길인 큰 손용  
 고무장갑 위에 어뽕어뽕 들려붙었다. 이젠, 저걸 끼고 설거지  
 할 남편이 집에 없다. 내 등골 아플까봐 칼질도 해주고 더러  
 운 것, 무거운 것 다 자기일로 여기고, 밤늦게 글 쓰는 마누라  
 위해 아침이면 애들 깨워 학교 보내주는 남편이 집에 없다.  
 자다가도 아프다면 안마해주고,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다  
 들어주고, 바다든 산이든 가고 싶다면 어디든 데려다주는 그  
 사람이 없어서 나는 홀로 눈발에 선 것처럼 가슴에 소슬바람  
 을 맞는다.

남편은 제2의 인생을 꿈꾸며 한국에 갔다. 그가 직장을 옮  
 기는 일을 두고 우리 부부가 내린 결론은 귀향이었다. 나는 진

작부터 한국에 가길 소원했고 남편은 비로소 결심이 섰 듯 한  
 국에서 일자리를 알아보았다. 다행히 하나남께서 길을 열어  
 주셨고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다.  
 아이들 학기 마칠 때까지만 기러기 가족이 되기로 했지만 10  
 학년인 큰 아이를 데리고 과연 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런 현  
 실적인 문제에 봉착하면 그만 이별이 길어질까 두려워 시도  
 때도없이 남편의 난자리를 흔꿈거리는 것이다. 내 사는 세상  
 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다.

남편이 있을 땐 내가 남편의 울타리 되어 산다는 생각을 했  
 다. 왜 그랬는지 그런 착각을 하며 살았다. 그런데 떠나고 보  
 니 이젠 알겠다. 남편이야말로 단단하고 평온한 울타리였다.

결혼 4년 차에 유학하는 남편 따라 도미했을 때, 우리 세식  
 구는 미국이란 바다에 갓알갱이처럼 동동 떠있었다. 10여 년  
 이 넘는 세월 동안 세 식구가 네 식구 되고 말 모르고 문화물  
 라 늘 다섯살배기 같던 나는 아홉 살 쯤으로 자라났고, 영어  
 로 잠꼬대 하는 우리 두 딸은 아가에서 소녀로, 소녀에서 숙  
 녀로 쑥쑥 커갔다. 그러는 동안 우리 가족은 머리 넷 달린 한  
 몸뚱이처럼 짐하게도 붙어살았다. 네 바퀴 달린 수레처럼 그  
 령계 서로 맞물리고 이어져 너른 세상을 어디든 굴러다녔다.  
 그런데 갑자기 바퀴 하나가 없어진 것이다. 없어지고 나서야  
 그 바퀴 하나에 얽혀 나머지 세 바퀴가 뚱뚱글 굴러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신혼 때 남편에게 물은 적이 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요?  
 남편은 선한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당신 대신 죽을 수 있을  
 만큼... 따끈따끈한 신혼에 그 정도 허풍을 안 떠는 남자가 어  
 디 있을까마는 내가 지금 사부곡을 부르는 이유는 그의 사랑  
 이 초추지처럼 세월 가도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남편을 기다  
 리며 바다를 바라보다 망부석 된 그 아낙도 남편의 깊은 눈길,  
 따스한 말투, 온정 깃든 속내를 그리워했을까. 그 가슴 안에  
 속 들어앉으면 비로소 하나 된 총명감을 그리워 했을까. 이  
 젠 당신 위해 내가 죽을 수 있어서 그리울 뿐임이라.

나는 작은 손용 고무장갑 대신 큰 것을 빼들었다. 큰 장갑을  
 끼고 남편 손 속에 내 손을 꼭 집어넣은 따스함으로 이제 휘  
 적휘적 걸어가야겠다. 그렇게라도 이 눈발을 걸어가야겠다.

12 이화여대 북미주 지회 연합회

# 엉뚱한 변명



이경숙  
(오하이오 거주, 의류직물학 72)

소파에 누워 깜빡 잠이 들었던 송 여사는 갑작스런 "세에 타악..." 소리에 놀라 깨어 누운 채 늘어지게 기지개를 폈다. 남편 말대로 돈을 벌러 다니는 것도 아니면서 뭐가 그리 바쁜지 매일 정신 없이 다니다 오한만에 집에서 쉬는 맛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작년에 막내를 대학에 집어넣고 새벽밥과 밤잠 짓는 데서 해방된 것까지는 좋았는데 곧 이어 찾아온 우울증으로 시달리던 것에 비하면 요즈음은 사는 게 이그러다 싶게 즐겁다.

친구의 권유로 여성단체에 가입해서 모임에 참석해보니 똑똑한 여자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처음에는 주눅이 들기도 했지만, 학창시절의 활기와 자신감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 신이 났다. 아이들 뒷바라지 핑계로 그동안 사양해 왔던 교회 일도 이것저것 맡았다. 어느새 구석방이다, 여성교회 총무다. 하역 직함이 여러 개로 불어나 큰 녀석이 명함은 언제 박을 거냐고 놀림 정도가 됐다. 자연히 송 여사 말투에는 권위가 실리고 웃차림도 세련되어져 아들따라는 호칭보다는 선생님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다행히 남편과 아이들은 별로 불평을 하지 않았다. 불평은 커녕 온근히 자랑스러워하는 눈치였다. 불매 운동 준비로 짙게 늦게 들어간 날, 온 식구가 짜장면으로 저녁을 때우면서도 싫은 소리 한마디 하지 않았다. 돈 한 톨 안 생기는 일로 매일 바쁘게 다니기는 하지만 아프다고도 리우워 있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인 것 같았다. 그런데 모처럼 오늘은 저녁에 병문안 갈 일을 제외하고는 아무 일도 없어 낮에 혼자 냉면을 삶아 돼지고기까지 얹어 먹고는 그만 깜빡 잠이 들었던 것이다. 먹자마자 잤으니 살이 2킬로그램은 불었겠다는 생각에 송 여사는 벌떡 일어나 지연이 방으로 갔다. 지난달 미국에 사는 동생이 놀리 외 같이 목욕했을 때 그녀의 투덜거리는 허벅지와 엉덩이를 보며 한심했는데 여자 직하면 자기도 그런 꼴이 되겠다 싶어 급히 사다 놓은 DDR이 그렇게 있기 때문이다.

"애, 너희 이모가 이번 전에 왔을 때보다 살이 많이 찼더라, 그치?" 동생이 떠난 후, 거울에 자신의 몸을 비춰보며 온근한 말투로 물었을 때 돌아온 지연의 대답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뭘, 심마랑 비슷하더구만" 그 말에 그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DDR을 하루에 30분씩 하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음악 소리에 맞추어 왼발을 들었다 오른쪽을 들었다. 팔씩팔씩 뛰다 보니 숨이 가쁘고 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그녀는 바지를 벗어서 의자에 걸쳐놓았다. 그런데 두 곡을 더 뛰고 나자 아랫도리는 시원한데 땀

에 젖은 블라우스가 몸에 달라붙어 끈적거렸다. 그녀는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며 영화에서 본 것처럼 블라우스를 벗어 머리 위로 빙빙 돌리다 방 저쪽으로 툭 던졌다. 몸에서 군살이 빠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니 점점 더 신이 났다. 정신없이 서너 곡을 더 뛰고 나자 다리가 후들거리고 목이 말랐다. 물을 마시려 부엌으로 가려면 환한 거실을 가로질러 가야 할 텐데 뺨이 누가 볼 것 같아 꺼려졌다. 내일 모레면 손자를 불나이에 꽃무늬 비키니도 아니고 여러 번 빨아 후줄근해진 브라자와 팬티차림으로 돌아다니는 모습이 가관이겠다 싶지만, 현관문이 굳게 잠겼는데 어떡하 싶어 그녀는 얼른 부엌으로 가 얼음물을 한잔 들이켰다. 그리고 물을 한 잔 더 마든 후 얼음을 서너 개 집어넣어 들고 지연의 방으로 돌아왔다.

컴퓨터 모니터와 화장품, 책들로 어질러진 책상 한쪽을 치우고 컵을 내려놓으려는데 오른쪽 셔탈이 배꼽이 열려 있는 게 눈에 띄었다. 보통 때는 설쇠까지 채워 놓는 그 셔탈이 열려 있다는 사실에 부쩍 호기심이 일어 살짝 열어보았다. 예상했던 대로 그 안에는 일기장인 듯 싶은 두툼한 노트가 한 권 들어 있었다. 송 여사는 노트에 손을 얹은 채 잠시 망설였다.

"내가 그래도 지식인이고 신앙인인데 이러면 안 되지!"  
"아니 무슨 소리? 부모가 자식을 올바르게 교육하기 위해 정신상태를 점검하는 게 뭐가 나빠?"

만화에 자주 등장하는 날개 달린 천사와 뿔 달린 악동이 마주 서서 인장을 벌이다 악동이 악랄한 미소를 짓는 순간 송 여사는 지연의 일기장을 꺼내 들었다.

제일 뒷장은 어제 날짜로 되어 있었다. 어제라면 지연이가 음악회가 노라고 늦게 들어온 날인데 그런 얘기는 안 적혀 있고 온통 친구들과 카프카에 대해 벌인 논쟁만 적혀 있었다. 앞쪽으로 몇 장을 더 넘기자 남자 친구 성호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옮겨니, 그동안 온근히 걱정해오던 걸 알 때가 왔구나 싶어 심호흡을 하며 첫 줄부터 읽기 시작하려는데 '당동' 초인종 소리가 났다. 그녀는 화들짝 놀라 서둘러 일기장을 덮었다. 그 셔탈에 팔꿈치가 옆에 놓인 유리컵을 툭 쳤다. 송 여사는 기우뚱 쓰러지는 유리컵을 간신히 왼손으로 붙잡아 세우고 책상 위에 옆질러진 물을 손바닥으로 쓸어내렸다. 그때 '당동' 또 한 번 뿔이 울렸다. 가슴이 터질 듯이 두덕두덕 뛰고 귀가 멍해졌다.

'도둑질은 아무나 하나' 중얼거리며 그녀는 급히 일기장을 넣은 후 셔탈을 닫고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다.

"엄마!"  
눈이 휘둥그레진 지연의 옆에 서서 성호가 머리 숙여 인사를 하려다 얼른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걸 보는 순간 송 여사는 정신이 반짝 들었다.

"어머나, 너희들이 이 시간에 웬일이니? 난 너희 아빠인 줄 알았다." 엉겁결에 외치며 급히 물을 돌려 안방 쪽으로 달려가다 그녀는 방문 앞에서 아차, 멈춰 섰다

'아니,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게야. 이렇게 되면 내가 마치 대낮에 집에 들어오는 남편을 맞이 위해서 벌거벗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잖아'

다시 돌아서서 변명할 수도 없고, 어찌할 바를 몰라 송 여사는 두 눈울 질끈 감았다.

# 클로드 최의

## “황홀한 달빛” 을 타고...



조신자(조율리)  
(캐나다 에드몬톤 지회, 영문 63)

새찬 들풍과 함께 굵은 비가 역세게 쏟아지고 있었던 지난 6월 9일 저녁, 나는 에드몬톤 얼음꽃 문학회 ‘문학의 밤’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바삐 돌아가는 새창살이에 휘말리다 보면, 더군다나 언어와 문화가 사뭇 다른 타국에서의 이민생활은 자칫 정서의 고갈을 가져오기에, 글과 음악과 그림을 모두 함께 한 장소에서 만날 수 있는 이런 기회는 마치, 잠시나마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의 청량제를 마실 수 있는 깊은 산속의 약수터로 향하는 그런 마음이었다. 그리고 낭만적인 시인이며 작곡가, 또한 지휘자이면서 연주자인 클로드 최의 클래식 기타 연주를 다시 만날 수 있기에 나의 발걸음은 주저함이 없었다.

내가 클래식 기타를 만난 건 1980년도 중반쯤, 그때 캐나다에서 클래식 기타리스트로 많이 알려졌던 여성, 리소나보이드를 TV 공연을 통해 접한 이후로 클래식 기타에 매혹되어 클래식 기타 연주자들의 에드몬톤 공연이 있을 때 찾아가곤 했었다. 악기를 가슴에 꼭 품어 안고서 연주자의 손가락이 기타줄을 튕겨주면 그에 따라 곧바로 응답하는 기타 — 그 기타 연주는 참으로 육감적인 인상을 내게 심어 주었다. 연주자와 악기가 하나가 되는, 절경을 이루는 연인의 모습이라고나 할까! 나는 음악에 대한 전문 지식은 없지만, 모든 악기는 연주자와의 관계가 아주 밀접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나는 유독 이 클래식 기타 연주에서는 그 둘의 밀접함을 더욱 깊이 가슴으로 느끼곤 한다. 악기를 가슴에 부둥켜 안은 연주자의 자세에서 그 친밀함과 다정스러움을 느끼는 것일까? 나중에 연주가 끝난 그날 나는 클로드 최에게서 들었다. “클래식 기타는 악기들 중에서 연주자의 심장 제일 가까이 데고 연주하는 악기”라고, 오음, 그렇구나... 클래식 기타리스트인 클로드 최의 연주는 제2부 제일 마지막 순서로 프로그램에 나와 있었다. 그는 지평선 연주곡을 끝내고, 청중들의 앙코르 박수에 응하여 다시 무대에 서면서, 자신이 작곡한 “황홀한 달빛”을 연주하겠다고 실내의 불을 모두 꺼 달라고 조용히 부탁하였다. 그와 그의 품에 꼭 안긴 기타가 연인과의 깊은 포옹인듯 클로드의 정묘한 손가락 움직임에 따라 서로의 사랑을 화답하며 어둠 속에서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선율을 청중의 가슴에 뿌려 주었다. 캄캄하기에 아마 그곳에 있던 거의 모든 이들이 눈을 감았으리라고 생각한다. 나도 자연스럽게 눈을 감았으니까..

어느새 나는 휘영청 밝은 달빛 아래 서 있는 어린 내 모습이 어른거리면서, 클로드의 선율은 다른 여자애들과 물장난하고 있는 부산 영도섬의 달빛 흐르는 바닷가로 나를 데려다 주었다. 그의 음악 속에서 나는 아이들의 재잘거림, 아주 재미있어 죽겠다는 듯 자지러지는 웃음소리, 잔잔한 파도가 살랑거리는 검은 바닷물 속에서 서로를 찾느라 큰소리로 이쁨을 불러대는 소리들을 다시 들을 수 있었다.

나의 일생에 꼭 한번 있었던 일이었다. 그렇게 보름달과 함께 밤바다에 나가서 알몸으로 물장난하며 놀던 일말이다.

14 후퇴 때 피난갔었으니까 1951년 여름이었으리라. 우리는 부산 영도섬에 안착했는데, 선결주택마냥 방 두 칸 자리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던 그 동네에는 제주도 해녀 가족들이 대부분 모여 살고 있었기에 그들은 우리를 “서울내기”로 특별 대접(?)을 해주었다. 인심이 후하던 때라 그네들은 ‘물질’ 하여 바닷속에서 갖다온 해물도 가득 나누어 주었고, 나는 매일 학교가 끝나면 해녀들 자녀들과 함께 바닷가에 나가 미역과 조개도 따고 놀면서 누구의 가르침도 없이 해섬도 자연스레 배웠고, 그래서 어느 운 좋은 날은 친구들 엄마인 해녀들이 나를 함께 ‘물질’에 데리고 가주면, 나도 아이들과 함께 해녀들이 사용하는 등골고 큰 물안경을 쓰고 그리 깊지는 않았지만 바다속 밑으로 잠수하여 해초도 뜯어오곤 했었다. 여름 방학이 오면, 거의 매일 하루 온종일 바다에서 보냈기에 나는 바다를 무서워하지 않았고, 언제나 바다는 나를 포근히 보듬어서 물 위에 떠 있게 할 것만 같았다. 그래서 지금도 바다에 대한 그리움이 아주 강한 편이다. 아, 폭풍속에서 산더미같이 밀려오던 그 미친 듯 날뛰던 성난 바다까지도 사랑했던, 쓰나미를 몰랐던 어떤 시절의 나였으니까.

그런데 하루는 동네 여인들과 여자애들이 모두들 밤에 바다에 나가서 달에게 기도하는 날이라고 하여 나도 따라나섰다. 엄하했던 우리 어머니가 “계집애가 밤에 어딜 나가려고?” 라며 말리 쫓을 터인데 아마 옆집 해녀 아줌마가 잘 설득 했던 것 같다. 신나서 따라나선 나는 그때 설 싶지 않았는데 바다에 도착해서 눈앞에 넓게 펼쳐진 검정빛 바다를 내다보면서 좀 겁도 났지만, 바다에 비친 달빛이 잔잔한 물결에 흔들리는 것이 참으로 신비스러웠고 아름답게 느껴졌던 것이 생각한다.

많은 제주도 여인들이 나와 있었다. 내 또래 아이들은 수형복도 없이 그냥 알몸으로 물속으로 침병이며 걸터 들어가서 놀았고, 우리보다 좀 나이들은 처녀들은 합창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들 보고도 ‘달’한테 기도하라고 해서 나도 기도를 했는데 무엇을 빌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아름다웠던 어릴적 추억의 한 장(幀)으로 이렇게 나를 때로시킨다.

클로드 최의 “황홀한 달빛”이 가져다준 천년만만했던 때의 나를 만나 보면서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동네 친구들과 무척이나 소박했던 해녀 아줌마들, 그리고 마당 건너편 앞집에 살던 개똥이 누부야도 가슴 아리게 그리워졌다. 이 음악의 어떤 신묘한 힘이 작용하여 내 안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추억을 다시 꺼내어 주었을까! 아무튼 지금도 나는 가끔씩 그리움에 젖어 “황홀한 달빛”을 따라 영도섬의 바닷가로 다시 나가 보곤 한다.

14 이화여대 북미주 지회 연합회



# 언니의 아들

김옥교  
(북가주 지회, 국문 60)

그 애는 해방이 된 이듬해 서울에서 태어났다. 아주 유난히 무덤덤 여름날이었다. 언니는 그때 겨우 열아홉 살이었다. 상당히 난산이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해서 안절부절못하는 것을 보며 남은 직구들까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긴긴하루 해를 보내야 했다.

언니의 남편은 이미 일본으로 떠나간 지 일 년이 넘어서 그 애는 아버지가 있으면서도 마치 유복자처럼 태어났다. 그때부터 언니는 우리 집에서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 애는 마치 동생이 없는 내게 동생 같은 존재였다.

그런 그 애가 수십 년 만에 미국엘 다니러 왔다. 그 애를 만나기 위해 온 가족이 다 모였다. 마치 잔칫집 같은 분위기 속에서 가락오케도 하며 보낸 즐거운 하루였다. 생각해 보면 정말 긴 세월이 꿈결처럼 지나가 버렸다. 80년대 중반 그 애도 아이들 셋을 데리고 이민 보따리를 싸서 이곳에 살려고 왔었다. 그러나 기구한 팔자 탓인지 아이들만 이곳에 남겨지고 그 애는 다시 한국에 돌아가 돌아오지 않았다.

다행히 남겨진 아이들은 지금은 다들 잘 자라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자기 몫을 하며 살고 있다. 수십 년 보지 못했던 아들들도 만났다. 둘째 아들을 만났을 때 마침 우리도 그곳에 함께 있었는데, 경작 본인들은 멀쩡한데 우리 남편이 눈물을 흘리고 말했다.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하면서 흔적였다.

그 애가 아이들을 버리고 떠나갔을 때 내 남편은 분노했었다. 세월이 약이라고 해야 하나? 결국, 어떤 형태의 잘못이나 실수도 세월이 지나면 다 잊게 되고 용서하게 되나 보다. 더구나 피를 나눈 부자의 경우라면 더 말할 것도 없는 것 같다. 오랫동안 가슴 속에 대못처럼 박혀 있던 미움이나 원망의 감정이 하루아침에 스러질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애도 처음 제 아버지를 서울의 한복판에서 만났을 때가 스물 세 살 때였다. 해방된 후 한일 관계가 원만치 못해 그동안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관계였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 당시 얼음 장사를 한다고 자전거에 얼음을 잔뜩 싣고 가던 아들과 머리가 하얗게 센, 이제는 거의 일본인이 되어 버린 늙은 아버지와와 첫 대면은 그냥 감격스럽다거나 슬프다거나 하는 단순한 감정을 뛰어 넘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수십 년 뒤 저도 똑같이 제 아들들을 그렇게 만나

게 되었다. 그동안 아버지와 자식들은 마치 남들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긴 세월을 무심하게 살아왔다. 언젠가 한국을 방문한 내가 제 아이들 사진을 보여줬더니 “길에서 만나도 이전 모르겠네!”하며 긴 한숨을 쉬던 적이 있다.

몇 년 전 팔순이 된 언니와 육순이 된 그 아들이 함께 여행을 떠난 적이 있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생각했다. 이제는 머리로 함께 하얀 머리로 변하고 함께 늙어가는 그 모습이 슬프기도 하고 잔잔한 감동을 주기도 했다.

나도 내 큰아들이 만날 때마다 흰 머리카락이 듬성듬성이고 주름살이 더 생기는 걸 보면 그것이 나를 슬프게 한다. 한 때는 눈부시게 아름답던 내 팔도 잔주름살이 눈가에 생기는 것을 보며 그것이 또 나를 마음 아프게 한다. 영원히 젊은 것도 없고 영원히 아름다운 것도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항상 자식들은 예외이기를 바라는 그 바보 같은 마음은 무엇이란 말인가.

언니도 겨우 몇 달 동안의 결혼 생활 끝에 아이 하나만 달랑 만들어 놓고 일본으로 떠나 버린 뒤 23년 만에 나타난 형부를 용서했다. 용서했을 뿐 아니라 그의 노후를 돌보아 주었고 마지막 가는 길까지 함께 했다. 그들은 헤어진 지 51년 만에 다시 결혼식을 올렸다.

마치 한 편의 소설 같은 이야기다. 그들은 다시 부부가 된 지 5년 만에 형부가 돌아가심으로써 그 길진 인연의 끈을 놓을 수가 있었다. 언니는 내게 그렇게 말했다. “그냥 불쌍한 한 노인을 돌보아 주었을 뿐이야”라고.

그도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당신은 숨겨진 보석 같은 사람이야. 예전에는 길이 없어서 그것을 보지 못했어. 나를 용서해줘”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내 인생을 소설로 써도 열권은 쓸 수 있을 꺼야 라고. 정말 우리 주변에는 소설보다 더 소설적이고 한 편의 영화보다 더 생생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난다. 언니가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아마 그 일이 아니었을까. 자신의 일생을 망친 사람을 용서하고 더 나아가 사랑으로 노후를 감싸주고 사랑을 배운 것은 최고로 성숙한 크리스찬의 덕목이며 승화된 다른 모습일 것이다.

언니와 그 아들은 다시 여행을 떠났다. 이번엔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요새미티를 보고, 일번 도로를 따라 빅서며 산타바바라를 둘러서 아름다운 태평양을 따라가는 그 여행 길에 그들 모자의 가슴속에 눈부신 기억으로 남았으면 한다. 지난날의 모든 후회나 얼룩진 기억들은 다 털어내고 나머지 의 삶은 편안하고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어머니의 부엌

백복현  
(토론토 지회, 영문 82)



썩개떡을 먹어본 지 꽤 오래 되었다. 봄 나물이 나올 무렵이면 어머니는 밥술 위에 얹어서 찌낸 썩개떡을 내 손에 쥐어 주시곤 했다. 겨우내 잃은 뺨은 갑지책을 옆에 놓고 어서 날이 풀려 고물장수 아저씨가 만화책을 싣고 동네에 나타나길 기다리던 봄은 내게 지루하기만 했다. 이를 눈치채신 어머니는 가끔 별식으로 내 지루한 봄날을 달래주셨던 것이다. 밥이 뚫드는 소리에 섞인 칼칼한 썩내음의 김빠지는 소리와 함께 봄날은 하루하루 길어만 갔다.

봄도 벌써 지나 입동으로 접어들고 눈두렁 발두렁에서 썩을 캐던 처자들의 노랫소리도 아득하기만한 늦가을 어느 날 L 선배님이 썩개떡 만드는 법을 시연한다고 알리셨다.

어언 질 집중에 들어선 L 선배님은 떡이라 하면 토론토에서, 아니 북미지역에서는 국보급에 해당하는 인간문화재다. 이 가을 날 어디서 썩을 뜯어다가 썩개떡을 만들까, 초봄 들에서 난 썩을 혹시 냉동해서 재료로 쓰는 것은 아닐까 혼자 궁곰했었다. 알고보니 L 선배님은 한국에 주문을 해서 썩가루를 준비해오신 거였다. 부엌에 들어서니 가을 찬 바람을 녹여줄 따스한 김이 짐통에서 올라오고 있었다. 썩개떡 시연을 위해 부엌을 오픈한 또 다른 선배는 짐통에 더운 물을 붓고는 한참 김을 울리고 있었다.

우선 부엌에 모인 여섯 여자들은 L 선배님의 지시대로 곱게 빻은 썩가루에 썩가루를 섞기 시작한다. 예전엔 짬이 귀해서 밀가루를 섞어 개떡을 만들었다고 한다. 오죽하면 이름이 개떡인가. 웬지 개 자가 들어가는 이름에선 천하고 상스러운 느낌까지 받는다. 우리 동리에 아주 귀하게 태어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개동이였다. 천한 이름을 지어 주어야 갑신기 질두를 안한다고 해서 일부러 개동이란 이름을 지어 붙였던 게다. 이름만 만들어도 썩개떡은 서민층에서 영성하니 만들어 먹던 떡이란 생각이 든다. 격식을 따지지 않고 되는 대로 만들어 먹던 떡이기에 개떡이란 이름을 붙이지 않았

을까? 제대로 된 재료에 정식으로 떡메로 치고 시루에 얹혀서 만든 찰떡과 차별화 하여 그 격을 낮추어서 부른 서민의 떡이란 생각이 든다. 오죽하면 옛어른들은 '썩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란 말을 다 하셨을까... ..

그래도 나는 채솟상이나 명절 상에나 오르면 찰떡인 인절미나 절편보다는 봄 한철 먹어보는 어머니의 썩개떡을 좋아했다. 썩개떡을 한 손에 들고는 한없이 행복하기만 했던 어린 날에 대한 향수가 어찌면 가을 찬 바람에도 불구하고 내 발걸음을 서둘러 선배의 부엌으로 돌리게 했는 지 모른다.

저녁밥을 얹으신 후에 어머니는 내게 특별식을 만들어주려고 남겨둔 불린 짬 한 줌에, 들에서 캐온 썩을 절구에 넣고는 쿵쿵 절구질을 하셨다. 적당히 뺏아서 아직 덩어리가 떨어져는 찰과 썩으로 열기썰기 반죽을 하였고, 손바닥만한 개떡이 빳어질 즈음이면 밥술에선 밥물이 끓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이때 솔단지들 열고는 김이 막 오르기 시작한 밥 위에 다 떡반죽을 하나, 둘 들이미시는 거였다. 썩개떡이 제대로 익어 그 쫄깃쫄깃한 맛을 내려면 밥물이 한 소금 더 끓어 올라야 했다.

이제 우리는 열은 썩색이 나는 짬반죽을 밀어 개떡을 빚기 시작한다. 어머니의 두박하고 거칠은 개떡이 아니라, 앙증맞기까지 한 작은 개떡을 빚는다. 만들어놓고 보니 호박씨, 포도씨로 장식까지 마친 떡은 개떡이라기 보단 화전에 가깝다. 이토록 썩떡이 호사를 하는 걸 보면, 아무래도 이 떡은 썩개떡이 아니라, 그저 썩떡이라고 개명을 해야 하는 지 모르겠다. 포크를 꼭꼭 눌러 빳살 무늬까지 새기니 썩개떡은 이제 영락없는 절편의 모습이다. 눈과 코를 호박씨로 심고 물끄러미 내려다본 썩떡의 모습은 어릴 적 어머니의 솔단지에서 찌낸 썩개떡을 한 쪽 받아주고 행복했던 내 얼굴같기도 하다.

어머니는 나를 한사코 자신의 부엌에서 밀어내셨다. 매캐한 연기 반, 그울음 반으로 빼곡한 부엌에서 간혹 행주치마



에 눈물을 닦아내실 적마다, 아마도 어머니는 고명딸을 겸볼 섞인 밥 짓는 시골로는 시집을 보내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셨던가 보다. 한사코 나를 아궁이에서 밀어내시며 그저 '너 좋아하는 책 보고 있거라, 얼른 개떡 찌주파' 하시는 거였다. 그래도 나는 어머니의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있는 걸 좋아하였다. 아직 다 타지 않은 잔불을 부지깥이로 내리칠 때마다 그울음과 함께 타다닥 불꽃이 타올랐다. 마른 잔술가지를 골라 아궁이에 집어넣고는 불꽃이 재로 타오르는 동안, 그 소멸의 시간을 지켜보는 일을 사랑하였다. 무릇 생명 있는 것들에 대한 따스한 온기와 중국에는 재로 화하고 말 허망함이 어린 내 가슴에 자리하고 있었던 걸까. 검불이 타는 연기와 열기로 어머니의 부엌은 늘 흐려 있었지만, 어머니의 마음처럼 그 부엌은 언제나 따스했다.

저녁 밥과 썩개떡이 푹드는 봄 날, 부엌 뒷마루에 앉아 저녁 어둠이 내리는 마당을 바라보면 내 마음도 고요히 가라앉곤 했다. 어머니의 부엌에서 썩떡이 찌지는 소릴 들으며 앞마당 우물가에 심어진 수국이나 질죽 같은 봄꽃들이 봉오리

맺는 소릴 듣고 있노라면 평온한 저녁으로 나의 바쁜 마음도 저물어 갈 수 있었다. 돌아보면 부엌 뒷마루에 앉아 썩개떡이 익기를 기다리던 그 시절은 내 생애 가장 평안하고 행복했던 시절이었다.

침통에선 김이 오르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드디어 우리는 썩개떡의 탄생을 맞게 되었다. 반죽으로 빚었을 때보다 더 진하고 선명한 개떡 속에 호박씨가 몇 개 박혀있다. 살짝 위로 치켜든 호박씨 눈이며 건포도로 빚은 코는 저절로 웃음이 나게 하는 개떡의 모습이다. 그 개떡에다가 잠기름까지 발라 담아 놓으니 이진 썩개떡이 아니라, 어느 양반집 제삿상에 올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 다소곳하고 안전한 모습의 썩떡이 되었다.

썩개떡 아닌 썩떡을 하나 받아쥐고 나는 물끄러미 선배의 부엌에 서서 잎 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부엌 창문으로 빠져나온 푸연 연기가 한 줄기 어둠으로 흘러가는 세월 저 편 뜨락에 썩개떡을 권 열 살 계집애가 말없이 서 있었다.

# 그림같은 정원이 있는 집에서 열린 노래교실에 다녀왔어요.



유희영 (토론토 지회, 경제학 86)

마음은 학교를 다녔던 20대와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은데, 어느덧 아리랑의 "...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 가 가슴에 와 닿는 중년이 되어 처음으로 동문 모임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림속에 나올것 같은 정원에서, 사진도 재미있게 찍고, 식사도 맛있게 하면서 동문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처음에 느꼈던 썩스러움은 어느덧 사라져 버렸답니다.

그리고 이어진 노래교실, <광화문 연가>를 부르시며 정동길의 추억에 젖으시던 소녀같은 선배님도 계셨구요. 이수인의 <별> 과 <등대지기> 는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화음을 맞추어 보았습니다. 저에게는 특별한 사연이 있는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는 신나게 불러도 보구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아주 건전한 사연이랍니다. ^.^) 많이 웃고, 시간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정말 열심히 노래 했네요. 아, 한국인은 정말 가무에 능한 민족이라니까요.

처음 접하시는 노래들도 진지한 마음으로, 열심히 따라 부르시는 선배님들의 모습에서 느껴지던, 세월의 무게에도 변하지 않는 순수함과 당당한 이화인의 모습, 모임시간 내내 흑외로워(?) 할까봐 계속 신경 써 주셨던 고마우신 선배님들, 사는 모습은 다를지라도, 아나도 이화인이구나 하고 가슴 설베었던, 함께 할수 있어 정말 감사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세월 가는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고 순탄한 삶을 꿈꾸었지만, 이제는 때로는 지치고 힘든 시간들 또한, 내가 할수 없는일은 체념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지게 해주는 고마운 스승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귀한 마음을 품으면 귀한 사람이 된다고요. 같은 시대를 살아내고, 추억을 나눌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입니다. 가슴으로 기억하겠습니다.



# 천국의 초원에서 달리다



**이영강**  
(남가주 지회, 국문 66)

그날은 대입 체능고사를 치르는 날이었다. 그 당시, 문교부 입시정책이 어찌나 변덕이 심했는지 해마다 입시생들은 가슴을 졸여야 했다. 내가 입학하던 1962년도에는 대학 정원을 거의 반으로 줄여버렸고, 전국적으로 국가시험을 실시하여 그 정원만큼만 합격을 시켰다. 입시의 문이 아주 좁아진 것이다. 게다가 체능고사 비율이 총점의 약 15%를 차지해 학생들은 지정된 다섯 종목인 달리기, 팔굽혀펴기, 높이뛰기, 넓이뛰기, 공던지기에 매달려 죽기 살기로 연습을 했다.

달리기 시험 때였다. 모두 긴장된 마음으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유난히 한 학생이 눈에 띄었다. 그녀는 부드러운 털이 잔잔한 물결을 연상케 하는 연파랑 반코트를 걸치고 서 있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예뻐다. 미스코리아에 나가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모두가 단발머리였던 시절인데도 그녀는 긴 머리를 포니테일 스타일로 높이 묶었다. 곁에서 아버지인 듯한 남자가 큰 목청으로 그녀에게 뭔가를 한창 설명하고 있었다. 운동시합에 나가기 전 코치가 작전지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광경이었다. 그 남자 역시 키가 굉장히 크고 체격도 컸다. 번쩍번쩍 빛나는 금 테두리 모자를 쓰고 군인 장교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꼭 맥아더 장군 같았다. 어쨌든 그들 둘은 내 눈에 참 멋있게 비쳤고, 보통 사람들과는 좀 다른 이국적인 인상을 풍겼다.

그녀 차례였다. 출발 신호를 정확히 포착하고 그녀는 달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갑자기 남자가 고향을 치더니 같이 달리기 시작했다. 라인 밖에서 뛰긴 했으나 어떻게

제 3자가 시립관의 제지 없이 같이 뛸 수 있었는데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그는 달리면서 손뼉까지 쳐가며 소리를 질러댔다. 그들의 뛰는 모습은 마치 들판을 달리는 야생마처럼 활차 보였다. 그리고 종착점에 도달하고는 두 손을 마주 잡고 팔짝팔짝 뛰었다. 정해진 타임에 골인을 하여 만점을 받은 게 분명했다. 아마도 겨우 해낸 것 같았다.

현데, 그날 그 달리기엔 내 인생 여정이 걸려 있었음을 그 누가 알았으랴...

나는 그 친구랑 4년 동안을 한 반에서 공부했고, 그녀의 바로 위 오빠와 결혼을 했다. 그래서 그 친구와 시누울케 사이가 되었고 그 멋있는 남자는 내 시아주버니가 되었다. 그는 친구의 아버지가 아니라 스무살이나 나이 차가 나는 큰오빠였다.

어느 날, 시누이가 말했다.  
“그때 내가 왜 죽기 살기로 뛰었는지 알아? 내 국가시험 점수가 시원치가 않아 체능고사에 만점을 못 받으면 떨어질 수도 있었거든. 한테 달리가 제일 문제였어. 그래서 큰오빠랑 매일 아침, 효창공원에 가서 피나는 연습을 한 결과 만점을 받았지 뭐냐. 그래서 달랑달랑 겨우 붙었어.”

만일 달리기에서 만점을 받지 못했더라면 우리의 인연은 그날로 끝났을 것이다. 아니, 그녀의 시야에는 내가 비치지도 않았으니 인연이란 것도 없다. 그러나 인연은 또 인연을 낳아 그녀의 달리가 나의 운명을 결정짓는 일생일대의 대사건이 된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만 4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재학 시절엔 팔방미인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다재다능해 교수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학생이었다. 활발한 성격에 교정을 누비고 다니며 동급생은 물론이고 선후배들 간에도 인기를 끌었던 그녀였다. 시아주버니 역시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50여년의 긴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내게는 그날의 달리기 광경이 어제 일처럼 눈앞에 선명하다.

천국에서 만난 두 사람, 그들은 지금, 두 손을 맞잡고 팔짝팔짝 뛰고 있을까? 아니면 천국의 초원에서 달리고 있을까?

# 뉴욕의 봄

신혜진 (뉴욕 지회, 영문 80)

뉴욕 생활 20년, 그건 꿈이었을까? '어찌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노라'고, '갔다 오겠다'고, 부모님, 동생들, 그리고 친구들에게 잠시 안녕을 고하고 한국을 떠나온지 20년이 훌쩍 지났다. 울도 타이머라는 범주속에 한 발자국씩 내딛고 있는 나를 볼 때 깜짝 놀라게 된다. 세월이라는 옛장수가 울려대는 찌렁찌렁한 가위 소리에 흘러 나는 무엇을 내다주면서 옛하고 바꾸어 먹었는지 도통 생각이 나질 않는다. 잠시 단맛에 우물거리던 옛조각의 기억은 희미한데 옛장수는 이미 가고 없다. 내 손을 잡고, 케네디 공항에 내려서 아빠를 찾던 두살때기 큰 아들이 벌써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으니 대견할 뿐이고, 그 뒤로 울망줄망하던 둘째 아들과 막내딸이 이전 벌써 엄마의 행동을 가능하며 비판을 서슴치 않는 통에, 그 쪽 시집살이에 접어들었다는 느낌에서 세월의 변화를 감지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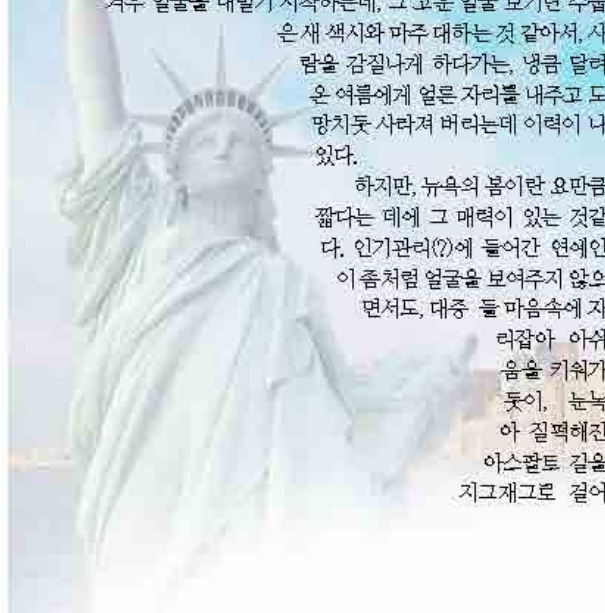
뉴욕의 봄, 그것은 나의 지난 시간이 내 인생의 아스라한 봄날이었듯이, 나에게 너무나 아련히 느껴진다. '뉴욕엔 사계절이 있어 좋아, 12,1,2월이 겨울이라면, 3,4,5월이 봄인게야. 자, 이렇게 명석을 깔아 주었으니, 냉큼 나와서 네 기량을 발휘해 보타구. 아름다울거야. 사람들이 좋아할거야.'라고 해마다 용기를 북돋아 주건만, 뉴욕의 봄이란 겨울의 힘에 밀려서 항상 3월은 빼앗기기 일쑤였고, 그나마 4월 초 좀 겨우 얼굴을 내밀기 시작하는데, 그 고운 얼굴 보기란 수준은 새 색시와 마주 대하는 것 같아서, 사랑을 감질나게 하다가는, 냉큼 달려온 여름에게 일른 자리를 내주고 도망치듯 사라져 버리는데 이력이 나 있다.

하지만, 뉴욕의 봄이란 요만큼 짧다는 데에 그 매력이 있는 것 같다. 인기관리(?)에 들어간 연예인이 좀처럼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면서도, 대중들 마음속에 자리잡아 아쉬움을 키워가듯이, 눈녹아 질퍽해진 아스팔트 길을 지그재그로 걸어

다니다가도, 우리는 이미 마음 한편에서 봄의 기척을 느끼고는 기다리지 않았던가. 그 기다림이 가져다 줄 봄의 실체를, 그 실체가 나의 양팔 사이에서 무너져버리는 안개같은 것이라해도, 뉴욕의 봄은 변덕스럽다. 몇일을 뱅긱거리다가도, 어느 새 숨어드는 통에 가까스로 정리해 놓은 겨울 옷을 다시 꺼내 입어야 했던 수고를 한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이제는 이점에 속지 않지만, 우리집 가장인 남편은 그의 봄을 접어둔채, (그 때, 봄날 운운하는 것이 어찌면 사치였는지도 모르겠다. 난 지금, 그에게 너무나 큰 고마움을 느낀다) 열심히 일을 하면서 가족의 봄날을 키워냈고, 큰 아이는 어느 봄날 공원 아스팔트에서 무릎이 까지면서 자전차를 마스터했고, 막내딸은 그 따뜻한 햇볕을 조망삼아 내가 놀러대던 카메라 앞에서 혼동한 모델이 되어 주었고, 둘째는 어느 날 감미로운 시를 지어 우리 가족을 감동시켰고, 몇년 전, 우리들은 워싱턴 빛꽃나무 밑을 걸으며, 새로운 봄날의 것을 추가하고 있었다. 3년 전 3월의 어느 봄날, 나는 결국 미국 시민이 되었고 법원을 걸어 나오며 쾌청한 날씨 속에서 생각했었다. '봄이란 계절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슴 뿌듯함도 이렇게 내 손에 들린 한강의 종이처럼 가볍게 만들어버리는구나' 하고, 스무번이 넘게 뉴욕에서 봄을 맞이하면서도, 내가 고작 기억해 낸 추억의 장면들이란 요렇게 아주 소소하다. 진정 '봄날은 간다'고, 봄이 왔다는 확신이 서기도 전에 그냥 그렇게 짧지만 진한 여운을 남기고 가는 것이라고 새삼스럽게 깨닫는다.

돌이켜 보면, 아쉽기만한 나의 지나버린 봄날에 대한 그리움은 이제 멀쳐버릴란다. 단지 지금은 나에게 또 다른 봄이 찾아오고 있다는 그 고마움에 가슴이 떨릴 뿐이다. 저녁 나절, 거실 깊숙히 들어오면, 햇벌의 기운이 고양되었음을 느낀다. 어느새, 햇벌이 생동하고 있다. 그 바람에 겨우내 안으로만 정진하던 나무들도 한껏 기지개를 펴고나면, 하품 끝에 눈물 맺히듯 나무가지엔 초록의 새싹이 툭툭 튀겨져 나오는 것을, 나는 빨리 보고 싶다. 내 아이들에게도 다시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말해 주고 싶다. 우리 모두 한 때 새싹 같았음을, 그리고 봄날을 가졌음을, 가지게 됨을.

뉴욕의 봄, 곧 다시 찾아올 것이다. 재촉하지 않으려나. 멀리 보이는 아지랑이로 왔다갈 건지, 마음을 적시는 촉촉한 비로 다녀갈 건지, 듀우럽이 군무를 펼치는 그 황홀한 꽃밭으로 왔다갈 건지, 그냥 기다려 보련다. 다만, 이번엔 천천히 음미해 보고 싶다. 짧기에 더욱 아름다운 뉴욕의 봄을. 지렁이가 손가락에 엉겨 붙어도, 젖은 흙을 고르며 다시 꽃씨를 뿌려 봐야겠다. 텃져나오는 꽃망울 속에 숨어 있는 봄날을 계절내내 한번 간직해 보고 싶다. '봄날은 간다'고, '봄날은 갔다'고 읊어야 될 때가 왔을 때, 신파조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특별 기고

## 유일한 글로벌 파트너십 이화, 그리고 이화국제재단 River of Faith

A Historical Perspective of the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Ewha Womans University



신장현 (워싱턴 디씨 지회, 교육 57)

이화여자대학교가 발전해온 역사에는 북미주와 한국, 두 나라의 기독교인들, 그중에서도 여성 기독교인들의 특별하고 놀라운 파트너십의 정신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화가 오늘날의 세계적인 여성고등교육기관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이들의 몇 세대에 걸친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 파트너십의 근원을 헤아려 보자면 1880년대까지 거슬러 가야겠지만, 본격적으로 공식화된 것은 1970년 이화국제재단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Ewha Womans University)이 설립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화국제재단의 역사는 '믿음의 강'의 비유로 표현됩니다. '믿음의 강'은 과거 미국 전역에 광범위한 움직임을 만들어냈던 "여성들을 위한 여성의 사역(woman's work for woman)"이라는 운동에 대한 상징적 비유입니다. 이 운동은 2천년전에 시작된 기독교 신앙의 흐름이 19세기 미감리교 여성들에 의해 시작되어 발전되어 왔으며 그들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성장하였고 이 운동을 거쳐, 이화여자대학교로 이어지는 과정을 비유합니다. 이후에는 초교파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또한 김활란 박사님은 이화국제재단은 국적과 성별을 불문하고 초교파적이고 팔트널쉽(Partnership) 정신으로 자율적인 재단을 구성하여 많은 이화의 친구들과 이화 동창들이 참여하는 국제적 기관을 꿈꾸었습니다. 그 당시 꿈을 성취하기 어려운 미국사회, 경제에 있는가운데도 불구하고 김활란 박사의 지지 없는 노력에 힘입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화국제재단과 이화의 파트너십은 40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으며, 이화가 한국과 세계의 여성들을 일깨우고, 교육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도움을 주는데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이화의 설립과 127년에 걸친 성장의 역사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꾸준한 노력과 후원이 있었습니다. 어언 한 세기에 걸쳐 미감리교의 여성들은 세계 각국의 여성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한국과 같은 나라에 선교사와 선교현금을 보내는 것을 자신들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김활란 박사는 모금 활동과 후원자를 모으는 일들이 보다 주체적으로

20 이화여대 북미주 지회 연합회

지속되어야 함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초교파적이며 동등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습니다. 김활란 박사의 이러한 노력은 이화가 필요로 하는 도움이 이화로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모금 활동의 장을 마련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활란 박사는 확고한 지도력을 가지고 미국 전역을 방문하면서 수많은 친구와 후원자들을 만들었습니다. 모금을 위한 여정 가운데 그녀는 많은 북미주에 사는 이화 동창들을 만났고, 각 지역에 북미주 동창지회 설립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수개월의 강도 높은 모금 활동으로 건강에 무리가 온 김활란 박사는 1969년 10월 한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한국으로 돌아오신지 몇달된 1970년 2월 10일 김활란 박사는 작고했습니다. 그러나 김활란 박사가 세상을 떠나기 전, 그녀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1970년 4월 15일, 당시 이화여대의 김옥길 총장과 김정옥 교수, 재단 구성 요원(Foundation Founding Members), 동창들 과 김활란 박사의 수많은 이화 친구들과 함께 뉴욕에서 '이화국제재단'의 창립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로부터 40여년 동안, 이화국제재단은 정치,경제적인 어려움의 시기들을 겪으면서 이화와 함께 하며 핵심 후원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건물 신축, 우수한 교수진 확보, 교육 기구와 프로그램 창설, 장학금 확보에 이르기까지 이화 발전의 전기를 마련 하는 중요한 후원이 이화국제재단을 통해 이어져 왔습니다. 이화국제재단의 수많은 후원의 내용 가운데는 100주년 기념 도서관 건립, 대강당 개보수 공사, ECC의 건축, 교수들의 연구비 지원, 120개가 넘는 장학금 후원과 이화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후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이화의 학문적 우수성을 세계의 여성들과 나누고자 제3세계 여성들을 이화에서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인 EGPP(Ewha Global Partnership Program)에 이화국제재단이 큰 관심을 갖고 후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화국제재단은 세계를 이화의 친구로 만들고자 했던 김활란 박사의 꿈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이화의 걸음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리고 이화와 이토록 유일한 국제적 파트너십을 이룬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대 국제재단은 '믿음의 강'의 흐름으로서 이화에서 끄치지 않고 이화를 통해 더 의미깊고 더 넓은 세계로 발전 하는데 계속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신장현 동문 약력**

1998년부터 이화국제재단에서 부이사장 및 모금기획부장으로 봉사한 후 2005년 은퇴하여 현재까지 명예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 여성들의 고등교육을 위한 기금 조성 프로젝트도 임장서서 진행하고 있다.

- 1957 이화여자 대학교 교육과 졸업
- 1960 동대학원 상담학 석사
- 1962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에서 석사 취득후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rockport 학생처에서 근무 (Assistant Dean of Students)
- 1981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에서 국제교육 전공으로 철학박사를 취득
- 1981-1984 Admission Consultant for the Rochester Area Colleges Consortium
- 1984-present Partner (business), The Weather School Company.

저서: "Korean Americans and Ethnic Heritage," "Moral Education Textbooks and the Making of Model Citizens in Japan and Korea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River of Faith: A Historical Perspective of the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Ewha Womans University(믿음의 강: 이대국제재단 역사)  
 번역: "Challenges for Women: Women's Studies in Korea" (이화여자대학교 출판소 발행)

"River of Faith"는  
 현재 New York의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Ewha Womans University, Inc. 과  
 전화: 212 864-5759, Fax: 212 864-2552  
 Email (in English): ewhafdn@aol.com  
 Email (in Korean): ewhafdn@yahoo.co.kr  
 이화여자대학교 출판소 발행.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or EUP Books, History). 현재 구입 가능하다.




**북가주 지회**  
회장 조미정 (정치외교 86)

2012년 밴쿠버 지회 연합회 총회에 북가주 지회에서는 14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여러 지회에서 참석하신 동창님들과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총회 달렌트쇼에서 '변사포의 생일잔치' 공연을 하여서 2011년 보스턴 총회 이래 2년 연속 일등상을 받은 아주 재주가 많은 지회입니다. 저희 지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 2013년 달렌트 쇼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할 예정이오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북가주 지회는 1986년, 1991년 그리고 2003년에 북미주 지회연합 총회를 개최한 경험을 살려서 2014년 총회를 전 지회원들이 마음을 모아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북가주 지회는 로맨틱한 도시로 전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샌프란시스코, 아름다운 와인의 명소 나파, 절경의 시에라 산맥, 그리고 세계를 이끄는 최첨단 하이테크 사업체들이 모여있는 실리콘벨리로 알려진 북가주에 있는 이화인들이 매주 첫째 토요일에 정기 모임을 하면서 정겨운 시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6월 2일: 정기모임을 샌리안드로에 소재한 한대관에서 가졌습니다.  
 7월 7일: 정기모임으로 Woodside에 위치한 Filoli Garden을 관람하면서 자연 속에서 여유를 즐기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8월 4일: De Anza Oaks Club House에서 정기모임을 가지면서 Silent Auction과 동창회 Fundraising도 하고 음악과 라인댄스도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9월 8일: 9월 정기모임을 오클랜드에 있는 수타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점심식사 이후에는 이곳 Bay Area와 San Jose 지역에서 재정 전문가로 왕성히 활동하고 계시는 김정연 씨께서 저희에게 적절한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10월 6일: 광명연 동문관에서 모임을 가지면서 선후배 간의 정겨운 시간을 가지면서 밴쿠버 지회연합총회에 준비를 함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11월 3일: 서니베일에 소재한 올레스지에서 11월 정기모임을 가졌습니다.  
 12월 1일: 송년파티를 포스터시티 크라운 플라자 호텔에서 50명 가까운 동창님들이 참석하셔서 변 사포의 생일잔치' 공연과 합창, 라인댄스, 노래방 대결과 댄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동창들 간의 우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3년 1월 5일: 신년 들어 첫 모임을 오클랜드 삼원갈비에서 가졌습니다. 시인이신 유봉희 동창님의 '잠깐 시간의 발을 보았다'라는 시집이 작년에 출판되었는데 1월 모임에서 시집 출판 기념송을 하고, 시집 판매대금은 동창회에 기부해 주셨습니다.  
 2월 2일: 광명연 동문에서 SF 한인회 부회장이 되신 기념으로 2월 모임에 집과 음식 일체를 제공해 주셔서 함께 점심을 나누고 새해맞이 웃음이를 하였습니다.  
 3월 2일: 정기 총회를 산호제 신장에서 개최하여 2012년 한해 활동 보고, 2013년 활동 계획 및 주요 안건을 총회에 올려 결정 하였습니다. 총회에서 지회연합회 복가주지회 이사진으로 조미경 당연직이사, 조성연 선출이사, 윤영신 선출이사 와 재갈숙 경 후원이사를 인준하였습니다.

 **토론토 지회**  
 회장 이순임 (사학 88)

토론토 지회에서는 2012년 지난해 4차례의 햇불회 모임을 각각 문경순(영어교육 68), 김정인(기독 94), 원정민(생활미술 80) 그리고 신영봉(교육공학 69) 동문 자택에서 가졌다. 햇불에는 목사님(그리고 강도사)들의 강의를 듣고 선후배 간의 멘토십을 돈독히 하는 모임으로 지난 1년간 현금 총 618불은 "선배라면 장학기금"과 "First Steps (복한 어린이 구호기독교단)"에 각각 400불과 218불 전액 기부하는데 쓰여 졌다.

2012년 6월: G. Ross Lord Park에서 총 50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모여 즐거운 야유회를 가졌으며 11월엔 Riviera Parque에서 1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말파티를 가졌다. 연말파티에선 일년간 동문회 주력사업인 동호회 활동 보고와 2013년 자기 회장 선출 추천 및 투표가 있었으며, 이순임 (사학 88) 동문이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2013년 3월: 정기총회엔 총 46명의 동문이 모여 전년도 서기 및 회계보고와 감사보고 그리고 이순임 신임회장의 인사 및 2013년 새 임원진 소개가 있었다.

2013년 활동으로 4번의 햇불회, 7월 야유회, 골프모임, 11월 연말파티와 각 동호회 활동 7월에 있을 한카 수포 50주년 기념 '이화 발레 앙상블-신은경 교수' 선교 공연 후원과 학교 세우

기 (5천불 모금 운동)사업을 소개하고 동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며 마쳤다.

동호회로 선샤인 봉사회, 성경공부반, 이화글벗 모임, 골프 교실, 토요일 경기 모임, 문화 체험반, 이화 노래 교실 그리고 정원 가꾸기가 있다.



### 밴쿠버 지회

회장 최정순 (정치외교 71)



밴쿠버 Fraser Heights의 신년모임

2월 16일 회장 최정순(71, 정외) 자택에서 신년모임을 가졌다. 유난히도 청명한 토요일 오후 자랑스런 이화여대 50여명의 선후배들이 모인 가운데 김아자(64, 기독교) 선배님의 기도로 시작하여 찬양과 교가제창을 하면서 지금까지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steak파티와 웃음을 즐겼다. 이 날 밴쿠버의 날씨는 유난히도 햇빛이 가득한 청명한 날씨였고 50여명의 이화인들이 Surrey Fraser Heights 동네를 가득 채웠다. 모교를 향한 정열과 열정을 가진 배꽃의 행렬은 자랑스러움 그대로였다. 맛있는 steak을 즐기면서 마음을 활짝 열고 기쁘고 즐거운 대화로 시작하여

웃음의 편을 짜면서는 더욱 절정에 이르렀다. 밴쿠버 지역사회에서 이화인으로서 봉사과 헌신을 다짐하며 찬양연습을 통해 이화여대 동문들의 결속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기를 다짐하면서 뜻깊은 시간을 나누었다



### 에드몬톤 지회

회장 조용옥 (국문 73)



흰 눈의 긴 겨울이 일년의 반을 지나며 에드몬톤의 이화 가족들은 너무 추운 (영하 25도) 겨울의 한 두달은 모이지 않지만, 해마다 7월에는 녹음진 공원에서 배우자 자녀들 모두 모여 바베큐를 즐긴다.

1979년 1회 최영린 회장으로 시작되어 30여년을 아끼자기한 모임으로 이어갔다. 에드몬톤 한국어학교에 다년간 후원하여 장학금 지급과 우리말 잘하기 대회 각 행사에도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노숙자 점심 봉사도 이화인이 모였고 작년 윤애진 회장 임기 중 4월에 ALPHA(영문과 조신자)연수 여행 기금모음 만찬에 동문들이 참석, 5월에는 조용옥(국문과) 시집 <푸르게 걸어가는 길> 출판

기념회가 있었다. 6월에 Paper Art 전시회에 이정자(동양화과) 윤애진(특수교육학과) 동문이 작품을 출품하여 재질을 과시하였다. 8월에 평통자문위원회 탈복 피아니스트 김길웅 연주회는 김정자(기독교학과) 동문의 부군이 모두 기획 주선하여 함께 참여하였다. 사회에 리더로 활동하는 이화의 가족들이 자랑스럽다. 아름다운 우정을 선후배 간에 쌓아 배꽃 향기가 천리향처럼 퍼지고 있다. 복키, 스위스 보다 아름답다는 밴프와 자스퍼가 바로 옆에 둔 행운도 .....



이화여대 북미주 지회 연합회





### 남가주 지회

회장 김정순 (간호 75)



#### 2012년 정기총회 및 송년 파티

총회 및 연말 파티를 12월 16일, Sheraton Los Angeles Down Town Hotel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강계원 부회장의 사회로 이수훈 (화학 59) 목사의 기도와 김정순 회장의 환영 인사, 재정보고가 있었으며 만장일치로 김정순 현 회장이 2013년도 회장으로 유임되었음을 발표하였다. 또한 매년 시행되고 있는 장학금이 두 명의 동문 자녀에게 수여되었고, 이어서 2012년 본국 총동창회 동창회보 경연대회에서 받은 입상금이 편집장 김영강(국문 66) 동문에게 전달되었고, 입상금은 그 자리에서 동창회에 기증되었다. 이어서 한나리(체육 92) 동문의 사회로 2부 순서인 이화인의 밤이 시작되었다. 특별 순서로 진행된 성기순(섬예 69) 동문 부부의 볼룸댄스, 건미희의 말씀 강담스타일이 이어져 한 마음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 남가주를 방문한 장상 전 총장 환영회

동창회 임원들은 지난 2월 6일 오후 12시에 선교부 주최로 20여명의 회원이 남가주를 방문중인 장상 전 총장을 모시고 담화하는 시간을 가졌고, 오후 2시에는 가든 스위트 호텔에서 장상 전 총장을 환영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장상 전 총장은 특히 이번 4월에 있을 LA 메시아 발레 공연에 대해 많은 격려를 하였다.

#### 이화 조각인들, 조각초대전에 동참할 참여

이화인 조각초대전이 Linda Kim 씨가 운영하는 남가주 Buena Park, Orange County 소재 Lynn J. Gallery 에서 2013년 1월 22일부터 2월 9일까지 열렸다. 조각초대전에는 현재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화조각인 16명, 남가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화조각인 3명, 총 19명이 참여했으며 작품들은 총 60여 점으로 한국에서 배로 운송이 되었다.

#### 임원회

2012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네 번의 임원회를 가졌다. (11월 20일, 1월 9일, 1월 30일, 2월 12일). 매번 10 - 15여 명의 임원들이 모여 그간의 행사를 보고하고 앞으로의 사업 계획을 논의했는데 주 안건은 남가주동창회 60돌 기념행사인 메시아 발레 초청공연으로 4월 26일 4월 27일 양일간 워셔이뱅크장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총장배 골프대회는 9월에 열릴 예정인데 올해는 골프부 주축로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워싱턴 DC에서 있을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 좀 더 많은 동창들의 참여를 위한 안건이 논의되었다. 정기총회 및 송년파티가 12월 첫주말에 있을 예정이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4월과 11월에 동창회보가 발행된다. 또한 동창회기 매너를 새롭게 제작할 계획을 세웠고, 60년사 전자북을 시작하기로 했다.



#### 이사회

상반기 정기이사회가 3월 14일 가든 스위트 호텔에서 있었다. 이사회는 이수훈 동문(목사 / 화학 59)의 <메시아> 공연을 위한 특별 기도로 시작하여, 문금숙 동문의 회의록 보고와 김주경 동문의 이사회 회계 보고, 동창회 사업계획과 회계 보고가 이어졌다. 주 안건은 <메시아> 초청공연에 관한 것으로, 공연 재정 현황은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어서 <메시아> DVD 관람이 있었고, Poster, Flyer, Ticket을 배당했다. 다음은 윤옥자(교육 57), 윤수현(조소 68), 고복주(생물 70) 동문 등, 새 이사 영입 인준이 있었다. 이 자리에는 모두 17 명의 이사가 참석했다.

#### 동창회 60돌 기념, 발레 <메시아> 초청공연

남가주동창회는 지난 4월 26일(금) 오후 7시 30분, 4월 27일(토) 오후 7시에 LA 소재 워셔이뱅크장에서 발레 <메시아> 초청 공연을 개최했다. 이 공연은 동창회 창립 60주년 기념으로 한국으로부터 “이화발레 앙상블”을 초청하여 이루어졌다. 발레 <메시아>는 양일간에 걸쳐 2000여 명의 관객들이 대거 참여하여 객석을 꽉 채울 정도로 대성황을 이루었다. 여기서 모인 수익금은 선교와 장학사업에 사용될 것이며, 특히 타민족 대학생들 선정하여 이화여대 국제여름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끔, 학비, 여행경비 및 모든 체재비를 지급하는 데에도 쓰일 예정이다.

4월 28일 저녁에는 가든 스위트 호텔에서 출연진과 스태프들, 그리고 동창회 임원 및 관계자들이 만찬을 같이 하는 자리를 가졌다.



### 뉴욕 지회

회장 박문수 (의학 82)



원들을 중심으로 2월 2일 주정남 동문댁에서 있었다. 장혜원 고문의 격려사, 박문수 회장인사를 포함한 하례식을 마치고, 김선영과 최은실 동문의 감미로운 음악, 86 졸업생들의 포크송, 잘 차려진 음식과 더불어 신년새해의 꿈을 다지는 시간이었다.

이경혜(77 영문) 동문이 뉴욕 교사회 공동회장 역임 중, 2012 한국어보급 유공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는 미국,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등, 세 사람의 수상자 중 하나인 귀한 성과이다. 2월 19일 손세주 총영사로부터 상을 전달받았다.

박영숙(86 경영)동문은 3월, 한식세계화에 발맞춰 한국의 음식과 음료와 문화에서 영감을 얻은 Korean Tapas를 주메뉴로 하는 레스토랑 반주(www.banjoo.com)를 맨해튼 한 중심에 오픈했다. 자연 친화적이며 편안한 분위기의 레스토랑 주소는 893 Broadway, N.Y. 10003이다.

2013년 정기총회가 3월 12일 열렸다. 재무 보고와 새로 나온 동문 보고에 이어 안건토론의 자리에서 유덕향 동문의 제안과 참석인원 만장일치로 대 뉴욕지구 동창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에 "북미주지회 연합회의 일부이며"를 첨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북미주지회 연합회 선출이사로 최정남 동문이 선출되었다.

2012년 10월 26일, 2012년 연례만찬이 플러싱에 소재한 Daedong 연회장에서 120여 명의 동창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만찬에서는 장학금수여, 모교에서 보내온 Photo Slide 감상, 식사 후 여흥시간을 통해 동창들 간의 건강한 우정을 나누며 새해의 더 크고 아름다운 도약을 약속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미대 동문들의 모임, 녹미회 2012년 전시가 12월 13일, Coohaus Gallery에서 열렸다. 18명의 회원이 참여한 전시회에서는 올해도 회화, 조각, 사진, 도자기, 설치작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였다.

2013년 신년하례식이 계사년을 맞이하여 이사들과 임



### 보스턴 지회

회장 김희선 (법학 77)

2월 16일(토요일) 12시30분 서인숙(경영 73)회계 자택에서 모여 최신자(성약 86) 동창의 특별 공개 개인 랫슨 시간을 통해 어떻게 짧은 시간에 부르는 노래가 가르침을 받아 변화되고 아름답게 되는 지 부른자와 듣는자 모두가 체험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서인숙 동창님의 풍성하고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진수성찬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이화인들은 무슨일에든지 열과 성의를 다하는구나 하는 뿌듯함을 함께 했으며 나쁜 기후관계로 많이 참석하지 못하였으나 모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모임에는 더 많은 동창들이 모여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기대하며 모



이화여대 북미주 지회 연합회



임을 마쳤다.

4월 5일 (금요일) 12시 야수 레스토랑에서는 어떻게 동창회를 활성화 할 것인가란 주제로 모여서 새로운 선출이사로 최혜경(주소 74)동창을 후원이사로 김정애(의학 70)동창을 또한 섭외로 최진자(성악 86)동창을 선출하고 젊은 동창들의 참석을 도모하기로 의논하였다. 그리고 재미과학기술자협회 수학경시대회후원과 한미예술협회 창단공연을 후원하고 이디오피아장은혜 선교사님계후원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모임후에 알게된 보스톤 한인 합창단의 탈북난민돕기 자선 음악회도 후원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보스톤 총회이후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내자 모였던 작년 8월28일(화요일) 프루덴셜빌딩 52층 Top of the Hub 레스토랑에서 많은 동창들이 참여하지 못한관계로 다시 좋은 시간을 만들 예정으로 오페라 관람을 생각하고 있으며 다음 5월 모임에는 작년에 백수연을 치루신 신좌경 대선배님을 모실 예정이다.



### 아틀란타 지회

회장 김정희 (약학 79)



아틀란타 지회는 매월 2째 주일 오후에 모임을 가지며, 1월의 모임에선 조정숙 (가정 64) 전회장님의 보고와 감사 말씀, 신입 회장 인사 및 새임원 소개 그리고 김인옥 ( )회계의 결산 보고가 있었다. 특별히 그 간 수고해 주신 조정숙 전 회장께 감사패 증정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동창회 발전을 위하여 전 회장단을 중심으로 후원 이사회를 조직하기로 하며 이사회를 발족하였다.

3월 모임에서는 특별히 아틀란타 총영사관의 부총영사로 부임한 유복렬 (불어교육 85) 동문의 인사와 신입 회원환영이 있었다. 유 동문은 최초의 여성부 총영사이며 이화가 낳은 영사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특별히 우리 지회의 영광으로 여기며 크게 환영하였다.



### 워싱턴 디씨 지회

회장 오혜경 (영문 72)

#### 2012년 12월 1일 총회 및 연말파티

12월 1일 우래옥에서 60여명의 동문 및 이화 사위가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총회 및 연말 파티를 가졌다. 이날 오혜경(영문 72) 동문의 회장 인준이 있었으며, 2012년 한해 동안의 활동 및 재무 보고가 있었다.

오 신입 회장은 취임사에서 회장직을 맡겨주신 동문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였다. 또한 내년 북미주 지회 총연합회를 워싱턴에서 18년 만에 다시 개최하게 됨에 따른 감격과 막중한 임무를 여러 동문에게 알렸으며 여러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간곡히 부탁하였다.

이외에 이화대학 국제 재단사인 "River of Faith" 를 출판한 신장현(교육 57)동문께 표창장을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지회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재정적으로 크게 후원한 김지완(도서 89) 동문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배인 김정자(가정 62) 동



이화여대 북미주 지회 연합회 27

문께서 무릎 담요를 증정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1부의 마지막 순서로 김복희(성악 49) 동문은 후배인 이정희(종교음악 89) 동문의 반주에 맞춰 독창을 하였으며 선후배간의 환상적인 호흡에 청중들의 뜨거운 갈채를 받았다. 만찬후 2부 순서로 퀴즈, 오락 및 경품 뽑기 시간을 가졌고 크리스마스 캐롤을 함께 부르며 복된 신년을 기원하면서 모든 순서를 마쳤다.



2013년 1월 19일 유연담 (정의 62) 전이사장 자택에서 20여명의 이사진들이 모여 이사회의를 가졌다. 이날 이명지(영문 67) 전회장이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되었고 그간 수고하신 유연담 동문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보냈다.

**2013년 2월 2일 북미주 총회를 위한 임원회**

2월2일 오혜경 회장 자택에서 약20여명의 임원들이 모여2013년에 개최될 북미주 지회 연합회 총회 (10.24-10.27)를 위한 임원회의를 가졌다. 에너지 넘치는 동문들의 아이디어로 알찬 회의를 가졌으며 총회 준비를 위해 모두 전력투구할 것을 다짐하며 회의를 마쳤다.

**2013년 3월 2일, 4월 6일 임원회**

3월 2일 이명지 전회장 자택에서 약 20여명의 임원 및 committee chair들이 그리고 4월 6일 김지완 부회장 자택에서 18명의 임원 및 committee chair들이 모여서 총회 진행사항 보고 및 북미주 지회 연합회 워싱턴 디씨 지회의 새로운 후원 이사 선출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총회 합창단 첫모임이 5월 9일 Charity Baptist Church에서 있을 예정임을 알렸고, 연례 행사인 퍼크닉은 5월 18일 Great Falls Riverbend Park에서 가질 예정임을 알렸다.

**클리브랜드 지회**  
회장 노희용 (약학 82)



매일 마지막 주 수요일에 모임을 갖는 “이화 만남”을 통해 동문들간의 소식을 나누며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동문에게 같은 뿌리를 가지게 한 모교에 도움이 되고자 늘 관심을 갖고 모교의 발전을 위해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선희(교심 70), 김정진(의학 72) 두 분이 선출이사로 봉사하시며, 인명숙(약학 73), 김영례(교심 79) 동문께서는 후원이사로서 지회뿐 아니라 총회의 발전에도 늘 마음을 합하여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현재 김영미(영교 82) 회계, 임영미(교육 83) 부회장, 이경숙(전교 84) 서기께서 클리블랜드지회 임원으로 봉사해 주고 계십니다.

동문 소식으로는 전민자(약학 67) 전지회장님께서 30년이 넘게 약사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시다가 2012년에 기다리시던 즐거운 은퇴를 하셨습니다. 문성애(생미 81) 동문은 Cuyahoga Community College에서, 한정심(수학 83) 동문은 이화의 자매학교인 Baldwin Wallace College 에서 각각 교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현재 모교에서 8명의 대학 학부 학생이 Baldwin Wallace College에 교환 학생으로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4월 27일에는 Baldwin Wallace Student Union을 방문하여 이화에서 유학 온 후배들과의 만남과 오찬을 갖고 후배들을 격려해주는 뜻깊은 이화 만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회의 오랜 선배님인 이숙자(영문 47), 이규원(약학 62), 김지연(법학 65), 백혜숙(의학 65), 최화자(법학 65), 안영렬(문과 65), 윤정분(의직 69) 동문님들을 비롯하여 최근에 이화 만남을 함께 하기 시작한 김현지(음대 96), 이내은(교심 93) 후배까지 모두 지회와 모교의 발전을 위하여 저희 지회는 한마음으로 모이고 있음을 자랑합니다.

지난 2012년 11월에 있었던 지역 연례 총동창회는 이선희 동문께서 특별히 가업장소를 제공하여 주시어 Crestmont Cadillac, Beachwood 의 전시장에서 부부동반으로 모여서 선후배 간의 마음 훈훈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클리블랜드 지회는 올해 워싱턴에서 있을 총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선후배님들과 특별한 이화인의 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28 이화여대 북미주 지회 연합회**



### 휴스턴 지회

회장 김명자 (의학 82)

1월 15일 2013년 첫 모임을 신지혜 동문(88 식품영양학)덕에서 18명이모여 평양과학기술대학원에서 남편과 함께 교수로 지내고 계시는 전영자 (영문과) 동문으로부터 이복의 현황과 선교상황에 대해 들었다.

2월 5일 16년째 해오고 있는 구정맞이 노인회 떡국잔치에 우리가 만든 맛있는 반찬과 떡국으로 부모님들께 봉사하였다. 휴스턴 첫 여성 합창단인 Innisfree 합창단이 부모님들께 신 아리랑 및 여러곡을 불러들였다. 이번 행사에 이제까지 중 최고 의 숫자인 28명이 참여하여 이대 동문들의 효사상과 봉사정신을 잘 보여주었다.

3월 28일 김혜자 동문 덕에서 모여 seafood gumbo 만드는 법 강습과 함께 각자가 가져온 salad재료로 맛있는 점심을 함께 하고 중국에서 7년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신 하인덕 동문으로부터 하얼빈 선교보고를 들었다. 10년 이상 해오고 있는 대학 진학을 하는 휴스턴지역의 Christian 여학생에게 수여하는 장학금을 모금하기 위한 garage sale 이 5월 18일에 Woodhaven Baptist Deaf church 에서 있을 계획이고 6월 8일 장학금 증정식이 있을 예정이다.



### 시애틀 지회

회장 김채순 (교육 71)



1월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김채순, 부회장 하은애, 총무 유영희, 회계 임지숙, 서기 유명순 동문을 각각 선임, 새로운 운영진의 다양하고 유익한 사업계획에 큰 기대를 모았다. 또한 이 자리에서 Univ. of Washington에서 한국학을 전공하는 S. Hanna양에게 장학금 일금을 전달하여 지역 장학사업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사진 참조). 앞으로 본교 국제재단을 통한 장학 사업과 더불어 이와 같은 현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시애틀 지회에는 골프 등산 문화 도서 서예 등 여러 부서를 두어 각 부서별로 다

양한 활동을 추진, 동문 상호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 있다. 예컨대, 골프부는 매주 월요일에 2개팀이 정기적으로 라운딩을 하고 있으며, 등산부는 서북부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등산을 통해 만끽하고 있다. 문화부에서는 Seattle Art Museum에서 Rembrandt 특별전시회를 20여명의 동문들이 함께 감상하기도 하였다 (사진 참조).





##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 지회 연합회 지회장

Ewha Womans University-United Alumnae Chapters of North America

### AK - Alaska 지회

김수연 Suyeon K Yi  
1986 신문방송

### AZ - Arizona 지회

조한숙 Joanne Hansook Cho  
1989 전산

### CA - N California 지회

조미정 Mi Jung Cho  
1986 정치외교

### CA - San Diego 지회

이광희 Kwang Hee Paik  
1973 의류직물

### CA - S California 지회

김정순 Jean Jungsoon Yu  
1975 간호

### CO - Denver 지회

정재연 Jaeyun J Kim  
1968 영문

### FL - Orlando 지회

김광해 Kwang Kim  
1963 불문

### GA - Atlanta 지회

김정희 Jeongwhae Kim  
1979 약학

### HI - Hawaii 지회

이정란 Jeong Ran Kim  
1985 영문

### IL - Chicago 지회

송복진 Bock Jin Kim  
1973 영문

### KS - Kansas 지회

강명숙 Monica Myung Lee  
1974 제약

### MK - Boston 지회

김희선 Heesun Kim  
1977 법학

### MD - Baltimore 지회

조성수 Susan Cho Kim  
1972 식품영양

### MI - Detroit 지회

박혜현 Haehyun Rhyee  
1972 생활미술

### MI - Lansing 지회

조미영 Mi-Young Jo Lee  
1985 동양화

### MN - Minnesota 지회

서윤순 Yoonsoon Youn  
1979 작곡

### MO - St Louis 지회

양혜자 Grace Heaja Kim  
1974/76 교육심리

### NC - N Carolina 지회

윤종화 Jolie Jong Kim  
1982 생물

### NV - Las Vegas 지회

권영애 Young Ae Jun  
1964 의학

### NY - Buffalo 지회

조재길 Jae Phyo  
1961 약학

### NY - New York 지회

박문순 Moonsoon Lee  
1966 사학

### OH - Cincinnati 지회

김영채 Janette Young Jon  
1959 영문

### OH - Cleveland 지회

노희용 Kate Lee  
1982 약학

### OR - Portland 지회

김미진 Jeannie M Kim  
1979 도예

### PA - Allen 지회

김여흡 Linda Kim Halma  
1954 영문

### PA - NorthEast 지회

원옥희 Ok-Hee Won Lee  
1970 의학

### PA - Philadelphia 지회

남광선 Kwangsun Moon  
1976 식품영양

### RI - Rhode Island 지회

이길자 Kilza Lee Jung  
1966 의학

### TN - Nashville 지회

김애경 Kay Son  
1975 의학

### TX - Houston 지회

김명지 Myong Jee Kim  
1982 의학

### TX - NorthEast 지회

이숙재 Suk Je Choi  
1985/87 무용/석사

### WA - DC 지회

오혜경 Hyekyung Kim  
1972 영문

### WA - Seattle 지회

김채순 Chae Soon Kim  
1971 교육

### Can - Edmonton 지회

조용옥 Yongoak Lee  
1973 국문

### Can - Montreal 지회

이채화 Chae Wha Lee  
1976 무용

### Can - Ottawa 지회

이연숙 Yunsook Lee  
1972 입 간호

### Can - Toronto 지회

이순임 Kate Soonim Lee  
1988 사학

### Can - Vancouver 지회

최정순 Jungsoon Lee  
1971 정치외교



이화여대 북미주 지회 연합회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 지회 연합회 연례회의 주최지회**  
 Ewha Womans University-United Alumnae Chapters of North America

년도	주최 지회	지회장	졸업	전공학과
1976	워싱턴 디씨	김정자	62	가정학
1977	대뉴욕	이해경	50	피아노
1978	시카고	전신애	65	영문학
1979	대뉴욕	장한희	53	기독교학
1980	디트로이트	김신형	49	가정학
1981	남가주	김성자	62	교육학
1982	시카고	최순자	66	의학
1983	대뉴욕	조 연	61	약학
1984	필라델피아	장창희	62	가정학
1985	워싱턴 디씨	한순정	59	서양화
1986	북가주	이명희	62	교육학
1987	대뉴욕	이부자	60	사회사업
1988	토론토	여정자	67	기독교학
1989	시카고	최경혜	60	법학
1990	남가주	이희성	59	영문학
1991	북가주	최충자	62	사회학
1992	디트로이트	김정숙	62	의학
1993	휴스턴	임예자	65	사학
1994	대뉴욕	임병대	60	교육심리학
1995	워싱턴 디씨	오성미	64	영문학
1996	보스턴	김경애	70	의학
1997	토론토	정인영	68	물리학
1998	애틀랜타	김은숙	68	사회학
1999	시카고	윤미혜	64	사회사업
2000	남가주	김대훈	66	화학
2001	디트로이트	차승순	70	기악
2002	올랜도	하명숙	66	체육
2003	북가주	강영자	64	기독교학
2004	휴스턴	김성혜	72	식품영양학
2005	클리블랜드	이선희	70	교육심리학
2006	토론토	강선희	67	교육학
2007	대뉴욕	최성남	70	약학
2008	시애틀	이정형	63	약학
2009	덴버	이미옥	68	국문학
2010	남가주	오명애	74	장식미술
2011	보스턴	조수현	76	수학
2012	밴쿠버	강유순	69	약학
2013	워싱턴 디씨	오혜경	72	영문학

\*상기 스케줄은 사정상 약간의 시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화여자대학교 2013 북미주 지회 연합회 총회 일정표

Ewha Womans University-United Alumnae Chapters of North America



### Oct. 24 (Thursday)

- 3:00 pm - 10:00 pm 호텔 체크인, 총회 등록 시작
- 8:00 pm - 11:00 pm 북미주 지회 연합회 이사회
- 9:00 pm - 친교의 시간 (가라오케와 와인바)



### Oct. 25 (Friday)

- 7:00 am - 8:30 am 아침식사 및 개회식 (8:00 - 8:30am)
- 8:30 am - 9:30 am 합창연습
- 9:30 am - 3:30 pm 루레이동굴 관광
- 4:00 am - 5:00 pm 세미나(건강강좌 및 법률상식)
- 6:30 pm - 9:30 pm 총장님과의 만찬, 기념촬영
- 9:30 pm - 11:30 pm 친교의 시간 (가라오케와 와인바)



### Oct. 26 (Saturday)

- 7:00 am - 8:00 am 아침식사
- 8:00 am - 10:00 am 북미주 총회
- 10:00 am - 4:00 pm 워싱턴 디씨 시내관광
- 4:00 pm - 5:30 pm 아트 워크샵
- 4:30 pm - 5:30 pm 합창연습
- 6:00 pm - 10:00 pm Grand Banquet, 기념촬영, 지회 Talent Show
- 10:00 pm - 11:30 pm 친교의 시간 (가라오케와 와인바)



### Oct. 27 (Sunday)

- 7:00 am - 7:30 am 아침운동 (요가와 스트레칭)
- 7:00 am - 8:30 am 아침식사
- 8:30 am - 9:30 am 예배
- 9:30 am - 11:30 am 총장님과의 대화, 작별인사



이화여대 북미주 지회 연합회





**이화여자대학교 2013 북미주 지회 연합회 총회**  
 Ewha Womans University-United Alumnae Chapters of North America

2013년 10월 24일(목)~10월 27일(일) 워싱턴 디씨



**Cherish Our Heritage to Impact the Future**

EWHA Washington DC 2013 참가신청서				
이름	한글		English	
졸업년도		졸업학과		동창회 지회명
주소				
전화	Home		Cell	
	Work		Fax	
이메일				
동행자수			동행자 이름	
날짜	참가회비 내역		비용	인원수
	등록비		\$20	
금요일 (Oct. 25)	Luray 동굴 관광*		\$85	
	Dinner with President		\$100	
토요일 (Oct. 26)	워싱턴 시내 관광*		\$70	
	Grand Banquet		\$100	
*Optional	TOTAL			

참가 신청서는 개인 수표나 Money Order와 함께 아래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EWHA Washington DC 2013  
 15415 Eagle Tavern Ln., Centreville, VA 20120      문의: 240-453-2506    회장: 오혜경  
 Payable to: EWHA Washington DC 2013      703-999-4400    총무: 조승숙  
 E-mail: ewhadcchapter@gmail.com

호텔 숙박 안내 (Hot Breakfast, Tax, and service charges Included): Group Name-EWHA 등록마감 10월 1일  
 1일 숙박 Single rate-\$107.26; Double rate-\$117.51; Triple rate-\$138.66; Quad rate-\$159.81  
**Hilton McLean Tysons Corner Hotel** (7920 Jones Branch Drive, McLean, VA 22102) <http://www.mcleanhilton.com>  
 for EWHA Group reservation, [Click here](#), Or Call 1-800-HILTONS (1-800-445-8667) Group code: EWHA

관광문의: 총회 시작하기 전 Williamsburg/Jamestown/Yorktown Tour 1박 2일 여행: 자세한 일정은 최영 동문  
 571-334-6700(교육 75) 이나 선 여행사의 김진형 매니저(410-750-1717)에게 연락 주십시오. 가격은 \$275.00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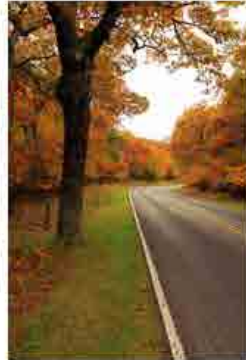
### 워싱턴 DC 관광 10월 26일 (토요일)

교통편: 전용차량

#### 세부일정

10:00 AM - 총회장 출발 (힐튼호텔 타이슨코너)  
 남북전쟁의 종전과 노예해방으로 유명한 에이브러햄 링컨을 기념해 건립된 링컨 기념관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관 방문  
 "I have a dream" - 마틴 루터 킹 기념관, 루즈벨트기념관  
 인공호수인 타이달베신 산책 (제퍼슨 기념관)  
 베트남 전쟁 기념관, 백악관, 국회의사당 관람  
 스미소니언 종합 박물관 중 자연사 박물관 관람  
 Caccaran Gallery (The Caccaran College of Art and Design) 경유  
 4:00 PM - 호텔 도착 (힐튼호텔 타이슨코너)

- \*\* 포함 사항 : 한인안내, 차량, 점심, 생수
- \*\* 불포함 사항 : 운전자 안내원(가이드) 봉사료(1인/1일 \$10)
- \*\* 승님의 부주의로 인한 부상, 분실은 관례에 따라 연책됨을 알려드립니다.
- \*\*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혹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쉐난도우 국립공원 관광 10월 26일 (금요일)

교통편: 전용차량

#### 세부일정

9:30 AM - 총회장 출발 (힐튼호텔 타이슨코너)  
 미등부 최대의 증유석 동굴이자 가장 아름다운 동굴인 톨레이 동굴 관광  
 세계 최대 규모의 고전 자동차 박물관 관람  
 아팔라치안 산맥의 쉐난도우 스카이라인을 따라 드라이브  
 프론트 로얄을 경유하여 출발지로 귀환  
 3:30 PM - 총회장 도착 (힐튼호텔 타이슨코너)

- \*\* 포함 사항 : 한인가이드, 차량, 입장료, 점심, 생수
- \*\* 불포함 사항 : 운전자 안내원(가이드) 봉사료(1인/1일 \$10)
- \*\* 승님의 부주의로 인한 부상, 분실은 관례에 따라 연책됨을 알려드립니다.
- \*\* 동굴 안은 일년 내내 섭씨 15도 정도를 유지합니다. 추위에 약하신 분은 겉옷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LUCIAD



**SHANEL**  
Hair Salon

703-658-2226  
4126 Village Ct., Annandale, VA 22003


세무업무의 모든일  
귀사의 어려운 세무업무를 정상화 도와 드리겠습니다.

**HAHN & ASSOCIATES, P.C.**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www.hahn-cpa.com

Securities offered through H.D. Vest Investment Services SM, Member SPC  
Advisory services offered through H.D. Vest Investment Service  
Hahn & Associates, P.C. is not a registered broker/dealer or independent  
investment advisory firm.

Thomas JoongHi Hahn, CPA, CFP  
313 Park Ave., Suite 200 Falls Church, VA 22046 708 Pendleton Street, Alexandria, VA 22314  
T) 703-533-3777 F) 703-533-3779 T) 703-684-4704 F) 703-684-4705

**Best Croissant in DC!**



Le Caprice DC is a family owned and operated bakery in the heart of Columbia Heights, just a few blocks north of the Metro. Come and enjoy fresh baked croissants, pain au chocolat, variety of cookies and pastries, cakes, bread loaves and baguettes every day. We also have a unique menu of sandwiches and salads and offer catering.

3400 14th St NW - Washington, DC 20010 - (202) 290-9108  
www.lecapricedc.com - @lecapricedc - facebook.com/LeCapriceDC



총회를 위해 후원해 주신 워싱턴 지회 역대 회장님들  
(앞줄 왼쪽부터 강정희, 신장현, 백경진, 권경주  
뒷줄 왼쪽부터 오혜경, 박옥영, 이경자, 유연담, 이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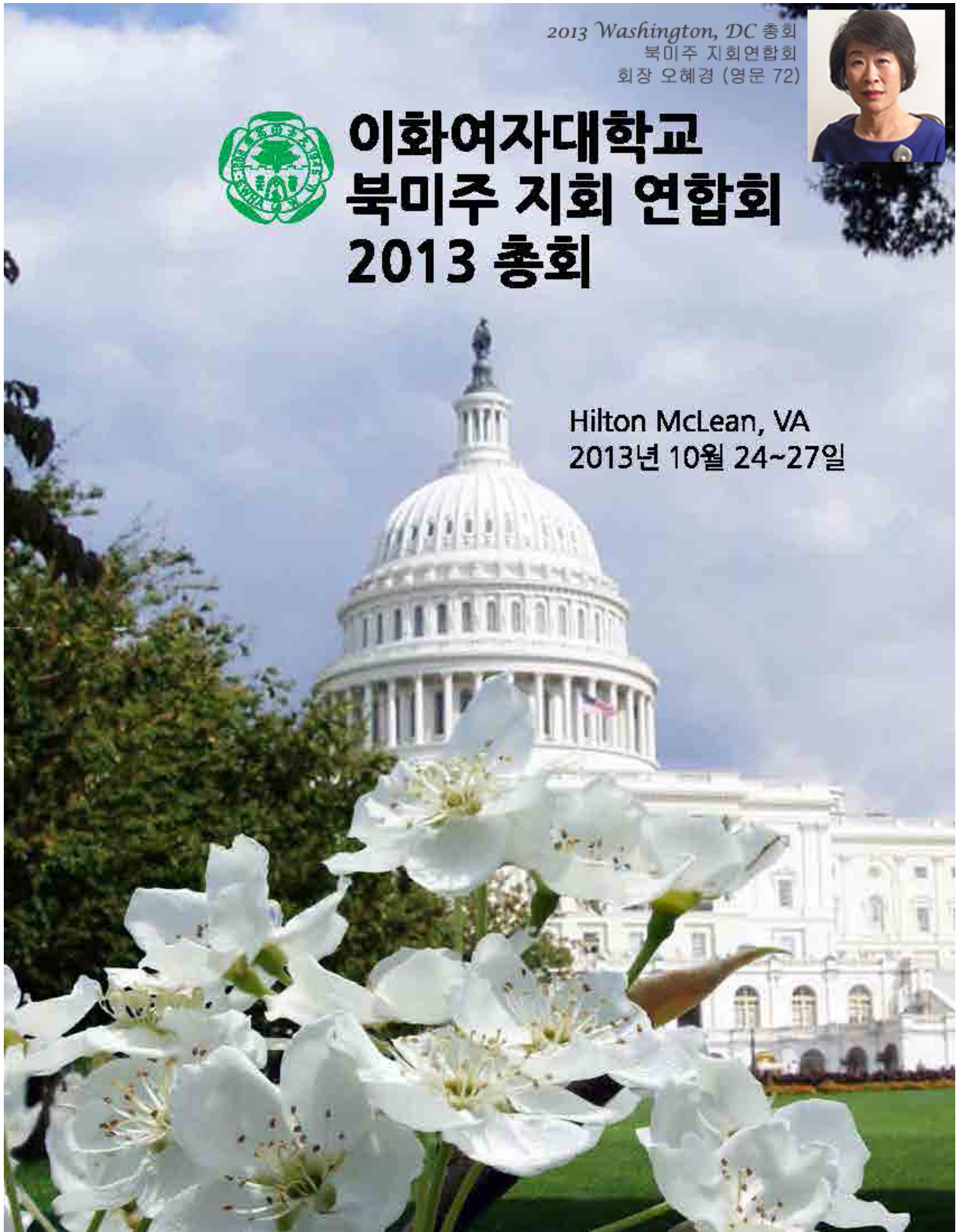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 지회 연합회

2013 Washington, DC 총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회장 오혜경 (영문 72)



#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 지회 연합회 2013 총회

Hilton McLean, VA  
2013년 10월 24~27일



Last modified : 2013.08.24 <21:40>